

---

# 목 차

I.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과제	13
II. 이론적 배경	17
1. 위기청소년의 개념	17
2. 위기청소년의 특성	19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방법 및 절차	27
2.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29
3. 측정도구	30
4. 조사 및 분석방법	33
IV. 연구결과	37
1. 조사대상	37
2. 위험요인	44
3. 위기결과	59
4.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30
5. 보호요인	144
V. 결론	149
1. 연구결과 요약	149
2. 연구 의의 및 제한점	154
3. 논의 및 제언	155
참고문헌	159
부록1.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	161

## 표 목차

표 1.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청소년 위험요인 .....	20
표 2. 선행연구에서 위기수준 분류 .....	23
표 3.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협업내용 .....	28
표 4. 지역별 연구조사 표집 계획 .....	29
표 5. 일반적 특성 문항 .....	30
표 6. 위험요인 영역별 하위요인 문항 .....	31
표 7. 위기결과 문항 .....	32
표 8. 보호요인 문항 .....	33
표 9. 지역별 분포 .....	37
표 10. 성별 분포 .....	38
표 11. 소속기관 분포 .....	38
표 12. 거주형태 분포 .....	39
표 13. 부모출신국 분포 .....	40
표 14. 가정경제수준 분포 .....	41
표 15. 청소년전화1388 인지 여부 .....	42
표 16. 청소년전화1388 이용 여부 .....	42
표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 .....	43
표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	43
표 19. 위험요인 차이 .....	44
표 20. 청소년 위기 수준 분할기준 .....	45
표 21. 일반학생 시군별 위기수준 .....	46
표 2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위기수준 .....	47
표 23. 일반학생 성별 위기수준 .....	48
표 24.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수준 .....	48
표 25.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	49
표 26.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	50
표 27.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	51
표 28. 취약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	52
표 29.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	53
표 30.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	54

표 31. 일반학생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55
표 32.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55
표 33. 일반학생 청소년전화 1388 이용여부	56
표 34.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별 위기수준	56
표 35. 일반학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67
표 36.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57
표 37. 일반학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별 위기수준	58
표 38.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별 위기수준	58
표 39.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	59
표 4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분포	60
표 41. 약물 중독 분포	61
표 42. 학교폭력 피해가해 분포	63
표 43. 비행 분포	64
표 44. 자살 분포	64
표 45. 성문제 분포	65
표 46. 가출 분포	66
표 47. 학업중단 분포	66
표 48. 시군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67
표 49.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68
표 50. 성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69
표 51.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69
표 52.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70
표 53.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71
표 54.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72
표 55.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73
표 56. 시군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74
표 57.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75
표 58. 성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76
표 59. 성별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76
표 60.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77
표 61.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78
표 62.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79
표 63.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80

표 64.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1
표 65.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2
표 66. 성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3
표 67.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3
표 68.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4
표 69.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5
표 70.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6
표 71.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	87
표 72.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88
표 73.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89
표 74. 성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90
표 75.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90
표 76.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91
표 77.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92
표 78.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93
표 79.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	94
표 80. 시군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95
표 81.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96
표 82. 성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97
표 83.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97
표 84.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98
표 85.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99
표 86.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100
표 87.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	101
표 88. 시군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2
표 89.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3
표 90. 성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4
표 91.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4
표 92.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5
표 93.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6
표 94.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7
표 95.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	108
표 96. 시군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09

표 97.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10
표 98. 성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11
표 99.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11
표 100.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12
표 101.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13
표 102.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14
표 103.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	115
표 104. 시군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16
표 105.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17
표 106. 성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18
표 107.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18
표 108.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19
표 109.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20
표 110.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21
표 111.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	122
표 112.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3
표 113.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4
표 114. 성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5
표 115.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5
표 116.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6
표 117.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7
표 118.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8
표 119.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	129
표 120.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0
표 121.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1
표 122.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2
표 123.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3
표 124.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4
표 125.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5
표 126.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6
표 127.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7
표 128.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8
표 129.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38

표 130. 일반학생의 자살 관련 경험별 위기수준 .....	139
표 131.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관련 경험별 위기수준 .....	139
표 132.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40
표 133.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141
표 134. 일반학생의 가출 경험별 위기수준 .....	142
표 135.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경험별 위기수준 .....	142
표 136.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위기수준 .....	143
표 137.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위기수준 .....	143
표 138. 대상별 보호요인 차이 .....	144
표 139. 일반학생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	145
표 140.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	146

---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 27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사회로 대변되고 있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 개인의 적응문제를 야기시킨다. 급변하는 시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청소년 문제나 위기상황도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원인도 복잡하다. 과거의 빈곤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위기상황과 달리,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더해져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으로 위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구본용 등, 2005). 이로 인해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단일문제에 대한 대처보다 통합적 접근과 개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총체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OECD(1995)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란, 학교부적응·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과 성인생활의 전환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며, 그 결과 적극적인 사회에의 기여가 가능하지 않은 청소년들로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다(Evans, 2005).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위원회(2005)를 중심으로 개인적·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윤철경 등(2006)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였고, 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극심한 빈곤,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비행 등을 지적하였다.

Mc Whirter 등(2004)은 위기(At Risk)를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위기를 연속선상에 있는 발달적·단계적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기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심각한 위기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 개인적·사회적 관심에서 더 나아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의무는 청소년기본법 12조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차원의 청소년 위기상황 예방 및 다양한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해 전국 222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지원(제5장)과 관련하여 상담과 교육,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행·일탈청소년과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순길 등, 2015).

또한 청소년 위기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06년부터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전국 수준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지역별 청소년의 특징과 문제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정책 제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0년 전국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청남도 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중독 문제와 자살 그리고 학교 부적응문제에 대해 충청남도 청소년의 고위험군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자살예방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각 위기결과 영역별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2011년 충남지역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관한 실태조사, 2012년 충청남도 청소년 학교 폭력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 2013년 충남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2014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급변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그간의 위기 청소년 문제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지속적인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문제 행동에 대한 예측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위기청소년 정책 개선 및 지원사업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청소년의 위기 실태 변화를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연구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

셋째, 도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도내 시·군 지역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II. 이론적 배경





## II. 이론적 배경

### 1. 위기청소년의 개념

위기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krisis’ 에서 나온 것으로 결정 혹은 전환점이란 의미를 내포하며, 한자로 危機(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위기에 관한 연구는 그 접근방법에 있어 다양하고, 이론적·임상적인 면에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위기의 개념 역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김기태, 2006 재인용).

Mc Whiter(2007)는 위기란 ‘현재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을 때 미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Caplan(1964)는 ‘인간유기체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유지된 균형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아 균형이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 을 위기라고 보았다. 즉, 안정적인 상황에서 항상 사용해오던 대처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을 위기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위기를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박재연(2010)은 위기에 대해 ‘역경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한다면 원만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주어진 상황이나 타인에 비해 후퇴하게 되는 기점’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OECD(1995)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학교 부적응·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으로 성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회 기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정체감 혼란, 의사우매성, 개인우화, 가상청중, 외견적 위선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로 인한 내적 혼란은 청소년을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기도 한다(한상철 외, 2001).

구본용 등(2005)은 위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으로 구체적인 위기 행동을 포함한 정의를 내렸다. 복지지원법(2005)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김은경 등(2006)은 현재는 파괴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 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신체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철경(2006)은 구체적인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상현, 윤명성(2007)은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강석영 등(2009)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결손가정, 경제적인 문제, 학교폭력 피해, 유해환경 등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힘든 위험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 지칭 하였다.

황순길 등(2015)은 위기청소년을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이러한 위기청소년은 가출, 비행 및 범죄,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폭력, 약물, 성매매 및 성폭력, 자살, 직업훈련 기관이나 직장 부적응 등의 행동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다양한 정의로 사용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OECD(1996)와 황순길 등(2015)의 정의를 토대로 학교 부적응·학업중단을 기준으로 일반청소년과 취약·위기청소년을 구분하였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소속된 청소년을 일반청소년으로, 검정고시학원,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학교, 꿈드림센터에 소속되거나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을 취약·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 2. 위기청소년의 특성

### 가. 위험요인

대부분의 위기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한 가지의 문제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기상황에 이르게 하는 요인을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설명하였으며, 위험요인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말하며(Pollard et al., 1999; 유영준, 오윤수, 2013 재인용)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위기결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이론을 통해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상호 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arnezy(1983) 역시 청소년들이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 및 학교요인, 사회(지역)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연구에서도 위험요인을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강근모, 이준기, 2015; 김보영, 이정숙, 2009; 오승환, 2010; 이상균, 2000; 전영천, 2010; 정묘순, 서수균, 2014; 진혜민, 배성우, 2012; 황혜원 등, 2006; Garnezy, 1990),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제행동 및 위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냈다(이창호 등, 2013; 진혜민 등, 2012; 황순길 등, 2015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위험요인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며,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는 공통적인 위험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청소년 위험요인

구분	위험요인	
	하위요인	내용
개인	비행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인 행동</li> <li>· 약물사용과 남용, 흡연, 음주</li> <li>· 공격성, 충동조절</li> <li>· 가출</li> <li>· 범죄활동 및 비행행동, 문제행동의 조기시작</li> <li>· 반사회적 인지 경향</li> </ul>
	정신건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 및 불안</li> <li>· 자살생각 및 시도, 충동조절</li> <li>· 인터넷 중독, 게임 과다</li> </ul>
	성격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자존감, 자신감 약화</li> <li>· 친구에 대한 열등감</li> <li>· 미래에 대한 불안감</li> </ul>
가족	구조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 및 재혼 가정</li> <li>· 외국인 노동자 및 북한탈출 가족의 자녀</li> <li>· 소년소녀 가장 및 부모의 결여</li> <li>· 사회복지 수혜자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계주</li> </ul>
	학대 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li> <li>· 정서적 및 실제적 방입</li> </ul>
	부모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li> <li>·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li> </ul>
	가족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및 형제의 학교 중퇴 경력</li> </ul>
	부모의 양육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교육적지지 및 개입 결여, 부모감독의 결여</li> <li>·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li> <li>· 지나치게 강압적인 부모양육 태도</li> <li>· 거부적인 부모양육 태도</li> </ul>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불화, 가족 간의 낮은 유대감</li> </ul>
	학교 및 또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li> <li>· 잦은 결석과 지각</li> <li>· 학업부진 및 낮은 성적</li> <li>· 개별교습의 실패</li> <li>· 학교전학</li> </ul>
지역 사회	교사 및 교과과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부적절한 준비 및 관련 교과과정의 부족</li> <li>· 적절히 않은 지도 방식</li> <li>· 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치</li> <li>· 교사들의 낙인/무관심, 관심지지 부족</li> </ul>
	학교 또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li> <li>· 또래의 비행여부</li> <li>· 또래의 위험행동 수용</li> <li>· 집단 따돌림</li> </ul>
	일자리 및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용한 일자리의 질과 양</li> <li>· 임금수준 및 실업률</li> </ul>
지역 사회	폭력 및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피해, 학대피해, 성범죄피해, 범죄피해 수준</li> </ul>
	유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이용</li> <li>· 주변유해 환경 노출</li> </ul>
	소외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된 지역사회</li> </ul>

첫째, 개인 수준의 위험요인은 개인의 지적 능력 수준에서 우울 및 공격적 행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 중 우울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최대의 변인(강혜원, 김영희, 2011; 이해경, 2002; 곽금주, 문은영, 1993)이며, 공격성이나 충동성 역시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진혜민 등, 2011) 공격성을 적절하게 발산하지 못하면 위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가족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써 가족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Johnson(1997)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4가지 요인을 설명하며 가족위험요인으로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의 수퍼비전 부족,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의 결여,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학교 중퇴한 형제, 이주 가정, 가정폭력을 들었다. Wilinon(1974)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가정환경을 들었고,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결손 등의 구조적인 측면과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등 기능적 측면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셋째, 청소년 시기의 또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림 당한 경우 범죄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한중철, 김인경, 2000), 집단괴롭힘으로 또래로부터 소외와 폭력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한다(이해경, 김혜원, 2001). 반면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한 또래가 비행할 경우 비행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2003) 부정적 또래 압력, 비행또래 접촉은 흡연(전영천, 2010)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넷째, 학교요인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비행과 폭력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으며(Jang, 1991),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학교애착과 학교몰입을 방해하여 청소년 학업과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하고, 수업시간이나 과제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학업성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정익중, 2009). 낮은 학습 의욕, 부정적 교사관계는 인터넷중독 등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김보영, 이정숙, 2009)

다섯째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나 낮은 사회적 유대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면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결핍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더 많다(Hagan, 1994, 배주미 등, 2010 재인용).

## 나. 위기수준

청소년의 위기는 내용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위기수준은 정상수준의 일반군에서부터 고위험 수준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위험으로 갈수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수준을 분류한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rt 등(1992)은 많은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학업중단, 알콜과 같은 약물사용, 범죄 행동 등 고위험 수준의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과 서비스를 증가할 목적으로 위기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4가지 수준(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위기수준은 일련의 과정으로 각 단계마다 위기를 극복하면 정상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서비스 지원을 위한 Connexions(2001) 사업은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별문제가 없으며 학업성적도 우수한 청소년 그룹으로 학업과 진로 상담 정도가 필요한 수준인 낮은단계, 복합적인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인 중간단계,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청소년 집단으로 전문가의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한 수준인 높은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각 단계에 맞는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함이다(배주미 등, 2010).

국내의 위기수준 및 유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승희 등(2006)은 문제행동, 환경영역, 정신건강 영역을 기준으로 위기수준을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정상군의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용 등(2005)은 위기청소년의 경우 한 가지 위기요인을 갖고 있기보다 동시에 몇가지 위기요인들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 분류는 단순한 분류가 아닌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각각 유형Ⅰ은 하나의 위기요인, 유형Ⅱ는 서로 다른 위기 요인 두 가지, 유형Ⅲ은 서로 다른 위기요인 세가지, 유형Ⅳ는 서로 다른 위기요인 네 가지가 청소년들의 상황 내에 있는 것이다. 이외에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위기수준 및 유형 분류는 표 2와 같다.

표 2. 선행연구에서 위기수준 분류

학자 분류	Burt 등 (1992)	Connexions (2001)	지승희 등 (2006)	McWhiter 등 (2007)	구본용 등 (2005)	배주미 등 (2010)
	· 위기행동					
↑ 고위험 위 기 수 준 ↓ 저위험	· 위기결과		· 1수준 (고위험군)	· 위기행동 입문	· 유형 IV	
	· 문제행동	· 높은단계	· 2수준 (위험군)	· 고위기	· 유형 III	· 고위험군
	· 위기표식	· 중간단계	· 3수준 (잠재적위험군)	· 저위기	· 유형 II	· 잠재적위험군
	· 위기전조	· 낮은단계	· 4수준 (정상군)	· 최저위기	· 유형 I	· 일반군

다.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 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권재환, 이은희, 2006; 한상철, 2008; 황순길 등, 2015 재인용).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증대에 따라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주장(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보호요인은 개인정서, 심리적 요인과 같은 유능감을 말하며 계획성, 책임감과 같은 성격적 특성, 내적 통제소재, 대인관계기술, 자기효능감, 자기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사회적 유능감과 같은 긍정적 자아상 등을 말한다(이애령, 2004). 이외에도 적극적인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등이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 자살, 가출 등의 생각을 억제한다(유인선, 2011; 문동규, 2012).

둘째, 가정은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이다. Blum(1998)은 성격, 가족, 환경 요인의 3가지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어 위기청소년을 설명하였는데, 이 중 가족요인으로 부모와의 유대감, 가족 유대, 가족구조, 형제 친밀감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은 인터넷중독, 가출, 비행 등의 위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이준기 등, 2012; 황순길 등, 2015 재인용).

셋째, 청소년 시기의 또래는 매우 큰 보호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중 또래의 지지는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석영 등).

- I · 서론
- II · 이론적 배경
- III · 연구방법
- IV · 연구결과
- V · 결론

넷째,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교사의 지지와 완만한 관계가 학교부적응이나 이탈행동에 보호역할을 한다(배주미 등, 2010). 또한 인터넷 중독과 학업중단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돕는다(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다섯째, 지역사회지지 또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내 많은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면 청소년 문제는 극복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조차도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문제들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Moffitt, 1993).



### Ⅲ. 연구방법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0) 청소년 위기실태 문항들을 분석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수정된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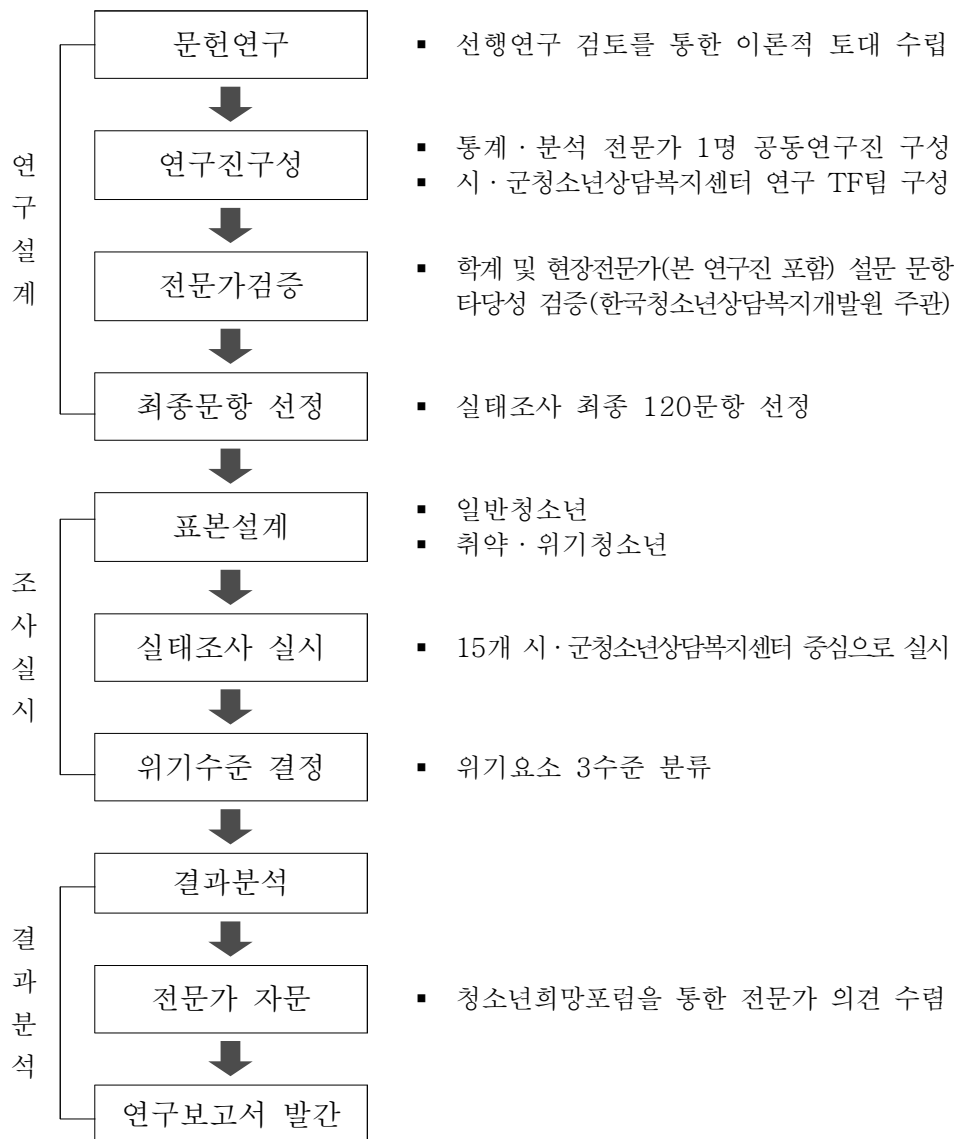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 I · 서론
- II · 이론적배경
- III · 연구방법
- IV · 연구결과
- V · 결론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 현황 등 통계자료를 통한 기술적 접근 및 위기청소년에 개념정리, 위기 청소년의 위험요인, 위기결과, 보호요인 등 이론적 접근에 대한 선행 연구를 문헌 조사하였으며,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별 일반청소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나. 수행방식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TF팀과 협업·협조 체계로 수행되었다.

다. 추진방법

- 1) 충남 15개 시·군 지역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진행
- 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
- 3) TF팀 구축·운영 및 시·군센터와 협조 체계 유지
- 4)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한 자료집 발간
- 5) 결과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안 및 포럼 추진

라. 협업내용

표 3.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협업내용

구 분	기 관
주제선정	- 본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구목적 및 방향성 논의	- 본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연구조사 TF팀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자료 표집 및 대상자 발굴	- 본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연구조사 TF팀
설문지(안) 구성	- 본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문지 수정 자문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구조사 TF팀
설문지 배포·회수	- 15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석 방법 검증 및 검토	- 본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코딩 및 통계 분석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제작	- 본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럼 개최	- 본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청소년 중 초(5,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일반학생과 해당 연령이지만 자퇴 등으로 재학중이지 않은 취약·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별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여 시·군별 표본을 배정하였다. 이에 일반학생은 초등학생(5~6학년) 850명, 중학생 975명, 고등학생 975명으로 2,800명 배정하였고,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와 상관없이 15개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 10명씩 임의 배정하여 총200명 배정하였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일반학생 모집단과 취약·위기(학교밖) 청소년의 표본 배정 비율 및 표집계획은 표 4와 같다.

표 4. 지역별 연구조사 표집 계획

(단위 : 명)

구분 지역	학 생 수			구 성 비 율	표 본 수				
	초 (5·6)	중	고		소 계	초	중	고	학교밖
천안	38,320	21,915	24,565	33.44%	960	270	315	315	60
공주	4,984	3,194	5,231	5.31%	160	50	50	50	10
보령	4,974	2,969	2,822	4.24%	110	30	35	35	10
아산	19,700	9,507	9,546	15.21%	310	90	105	105	10
서산	10,078	5,856	5,482	8.43%	210	60	70	70	10
논산	6,102	3,517	5,572	5.94%	160	50	50	50	10
계룡	3,027	1,950	1,515	2.54%	110	30	35	35	10
당진	9,418	4,731	4,703	7.37%	210	60	70	70	10
금산	2,298	1,329	1,448	1.98%	110	30	35	35	10
부여	2,744	1,787	2,121	2.60%	110	30	35	35	10
서천	2,045	1,343	1,930	2.08%	110	30	35	35	10
청양	1,041	636	867	0.99%	110	30	35	35	10
홍성	4,833	2,907	3,212	4.39%	110	30	35	35	10
예산	3,318	2,099	2,842	3.23%	110	30	35	35	10
태안	2,586	1,472	1,697	2.25%	110	30	35	35	10
계	115,468	65,212	73,553	100.00%	3,000	850	975	975	200

###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0)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청소년 현장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사 TF팀 회의를 통해 문항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5)에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실태 측정을 위한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비롯하여 위험요인, 위기결과, 보호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가. 일반적 특성 문항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표 5와 같다.

표 5. 일반적 특성 문항

구 분	문항수
성 별	1문항
나 이	1문항
소속기관	1문항
학 년	1문항
거주지역	1문항
거주형태	1문항
부모님 출신국	1문항
가정 경제수준	1문항
외부 경제지원	1문항
물질적 지원	1문항
정서적 지원	1문항
도움을 청할 사람	1문항
청소년전화 1388 인지	1문항
청소년전화 1388 이용	1문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1문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1문항

나. 위험요인 문항

5점 척도(0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요인이 큼을 의미한다. 문항구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alpha$  값은 0.6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위험요인 세부영역 중 문제가족원과 비행친구의 경우 2점 척도(0점 : 전혀 없다, 1점 : 조금있다, 2점 : 많이 있다)로 구성되어있으며 분석 시 1점은 2점, 2점은 4점으로 변수를 코딩하여 분석한다. 위험요인 영역별 하위요인 문항구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위험요인 영역별 하위요인 문항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 위험요인	우울·불안	9문항
	공격성·충동성·부주의	9문항
가정 위험요인	가정폭력	3문항
	부모간 갈등	2문항
	부모와의 갈등 관계	4문항
	방임	3문항
또래 위험요인	문제가족원	4문항
	비행친구	4문항
학교 위험요인	학교생활부적응	5문항
지역사회 위험요인	유해환경	3문항

Ⅰ · 서론

Ⅱ · 이론적배경

Ⅲ · 연구방법

Ⅳ · 연구결과

Ⅴ · 결론

## 다. 위기결과 문항

5점 척도(0점 : 전혀없다, 1점 : 1번, 2점 : 2~3번, 3점 : 주1~2회, 4점 : 거의매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결과가 큼을 의미한다. 문항구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alpha$  값은 0.6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위기결과 문항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위기결과 문항

영역	문항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문항
술·담배·약물	3문항
학교폭력	10문항
비행	3문항
자살	3문항
성문제	7문항
가출	2문항
학업중단	2문항
직장생활부적응	6문항



라. 보호요인 문항

5점 척도(0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 보호요인이 큼을 의미한다. 문항구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alpha$  값은 0.6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호요인 문항 구성은 표 8과 같다.

표 8. 보호요인 문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 보호요인	6문항
가정 보호요인	3문항
또래 보호요인	2문항
학교 보호요인	2문항
지역사회 보호요인	2문항

4.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는 전문가 검증을 통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5)에서 최종 수정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학교별로 조사목적과 방식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의 3개 시·군이 표본 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최종 분석은 데이터 클리닝 후 3,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이다.

Ⅰ · 서론

Ⅱ · 이론적배경

Ⅲ · 연구방법

Ⅳ · 연구결과

Ⅴ · 결론



## IV. 연구결과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

#### 가. 지역별

총 조사대상자는 천안(26.2%), 공주(3.9%), 보령(11.3%), 아산(8.5%), 서산(13.0%), 논산(4.4%), 계룡(2.6%), 당진(5.5%), 금산(2.7%), 부여(2.9%), 서천(2.8%), 청양(2.7%), 홍성(2.8%), 예산(2.9%), 태안(7.9%) 지역의 일반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은 부여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표집 되었다.

표 9.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지역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천안시	953 (26.2%)	22 (17.5%)	975 (25.9%)
공주시	143 (3.9%)	10 (7.9%)	153 (4.1%)
보령시	412 (11.3%)	8 (6.3%)	420 (11.2%)
아산시	309 (8.5%)	9 (7.1%)	318 (8.4%)
서산시	472 (13.0%)	10 (7.9%)	482 (12.8%)
논산시	161 (4.4%)	1 (0.8%)	162 (4.3%)
계룡시	94 (2.6%)	17 (13.5%)	111 (2.9%)
당진시	201 (5.5%)	9 (7.1%)	210 (5.6%)
금산군	98 (2.7%)	1 (0.8%)	99 (2.6%)
부여군	104 (2.9%)	0 (0.0%)	104 (2.8%)
서천군	103 (2.8%)	9 (7.1%)	112 (3.0%)
청양군	97 (2.7%)	1 (0.8%)	98 (2.6%)
홍성군	101 (2.8%)	9 (7.1%)	110 (2.9%)
예산군	104 (2.9%)	5 (4.0%)	109 (2.9%)
태안군	287 (7.9%)	15 (11.9%)	302 (8.0%)
합계	3,639 (100.0%)	126 (100.0%)	3,765 (100.0%)

### 나. 성별

총 조사대상 중 남성은 47.7%였으며, 여성은 52.3%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남성이 52.8%로 일반 학생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0. 성별 분포

(단위 : 명)			
성별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남성	1,732 (47.6%)	67 (52.8%)	1,799 (47.7%)
여성	1,909 (52.4%)	60 (47.2%)	1,969 (52.3%)
합계	3,641 (100.0%)	127 (100.0%)	3,768 (100.0%)

### 다. 소속기관별

총 조사대상 중 초등학교 26.3%, 중학교 38.2%, 고등학교 32.1%, 꿈드림센터 2.0% 소속되어 있었으며, 어느 곳에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1.2%이었다.

표 11. 소속기관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990 (27.2%)	0 (0.0%)	990 (26.3%)
중학교	1,439 (39.5%)	0 (0.0%)	1,439 (38.2%)
인문계 고등학교	899 (24.7%)	0 (0.0%)	899 (23.8%)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314 (8.6%)	0 (0.0%)	314 (8.3%)
대안학교	1 (0.0%)	0 (0.0%)	1 (0.0%)
검정고시 학원	0 (0.0%)	5 (3.9%)	5 (0.1%)
직업학교	0 (0.0%)	1 (0.8%)	1 (0.0%)
소년원학교	0 (0.0%)	1 (0.8%)	1 (0.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0 (0.0%)	46 (36.2%)	46 (1.2%)
꿈드림센터	0 (0.0%)	74 (58.3%)	74 (2.0%)
합계	3,643 (100.0%)	127 (100.0%)	3,770 (100.0%)

## 라. 거주형태별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중복응답 가능하도록 물어본 결과,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각각 친아버지 87.1%, 68.3%, 친어머니 89.3%, 70.6%, 형제자매 79.9%, 61.9%였으며, 조부모의 경우 15.9%, 11.9%로 나타났다.

표 12. 거주형태 분포

(단위 : 명)

거주형태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친아버지	3,157 (87.1%)	86 (68.3%)	3,243
친어머니	3,237 (89.3%)	89 (70.6%)	3,326
새아버지	60 (1.7%)	2 (1.6%)	62
새어머니	47 (1.3%)	5 (4.0%)	52
할머니나 할아버지	576 (15.9%)	15 (11.9%)	591
친척	79 (2.2%)	1 (0.8%)	80
형제자매	2,897 (79.9%)	78 (61.9%)	2,975
친구 또는 선후배	18 (0.5%)	2 (1.6%)	20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4 (0.1%)	0 (0.0%)	4
혼자살고 있음	10 (0.3%)	6 (4.8%)	16
합계	3,625	126	3,751

※다중응답 가능 문항

마. 부모출신국별

조사 대상자 중 두 분 모두 한국인은 97.3%였으며, 부모 중 한분이라도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1.8%였다.

표 13. 부모출신국 분포

(단위 : 명)

부모출신국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두분 모두 한국인	3,535 (97.2%)	126 (99.2%)	3,661 (97.3%)
두분 모두 외국인	3 (0.1%)	0 (0.0%)	3 (0.1%)
한분만 외국인	66 (1.8%)	1 (0.8%)	67 (1.8%)
두분 모두 새터민	2 (0.1%)	0 (0.0%)	2 (0.1%)
한분만 새터민	3 (0.1%)	0 (0.0%)	3 (0.1%)
두분 모두 중국교포	2 (0.1%)	0 (0.0%)	2 (0.1%)
한분만 중국교포	12 (0.3%)	0 (0.0%)	12 (0.3%)
모르겠음	14 (0.4%)	0 (0.0%)	14 (0.4%)
합계	3,637 (100.0%)	127 (100.0%)	3,764 (100.0%)



### 마. 가정경제수준별

조사대상 중 가정경제 형편에 대하여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 는 경우는 9.2%(346명)에 해당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전체 127명 중 39.4%가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 고 한 반면, 일반학생은 8.1%만이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 고 답하였다.

표 14. 가정경제수준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매우 어려운 편	38 (1.0%)	10 (7.9%)	48 (1.3%)
어려운 편	258 (7.1%)	40 (31.5%)	298 (7.9%)
보통	2,492 (68.5%)	67 (52.8%)	2,559 (68.0%)
잘 사는 편	739 (20.3%)	10 (7.9%)	749 (19.9%)
매우 잘사는 편	112 (3.1%)	0 (0.0%)	112 (3.0%)
합계	3,639 (100.0%)	127 (100.0%)	3,766 (100.0%)

사.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청소년전화 1388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48.9%가 ‘예’ 라고 하였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70.1%가 ‘예’ 라고 응답하였고 일반학생의 경우 역시 ‘예’ 라고 응답한 비율이 48.2%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단위 : 명)

인지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1,754 (48.2%)	89 (70.1%)	1,843 (48.9%)
아니오	1,882 (51.7%)	38 (29.9%)	1,920 (51.0%)
합계	3,636 (100.0%)	127 (100.0%)	3,763 (100.0%)

아.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4.3%만이 ‘예’ 라고 하였다. 그러나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 ‘예’ 라는 응답이 22.8%로 일반학생 3.6%에 비해 높았다.

표 16.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단위 : 명)

이용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132 (3.6%)	29 (22.8%)	161 (4.3%)
아니오	3,503 (96.4%)	98 (77.2%)	3,601 (95.7%)
합계	3,635 (100.0%)	127 (100.0%)	3,762 (100.0%)

### 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58.8%가 ‘예’ 라고 하였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91.3%가 ‘예’ 라고 응답하였고 일반학생의 경우 역시 ‘예’ 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

(단위 : 명)

인지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2,096 (57.6%)	115 (91.3%)	2,211 (58.8%)
아니오	1,541 (42.4%)	11 (8.7%)	1,552 (41.2%)
합계	3,637 (100.0%)	126 (100.0%)	3,763 (100.0%)

### 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9.3%만이 ‘예’ 라고 하였다. 그러나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 ‘예’ 라는 응답이 67.5%로 일반학생 7.3%에 비해 높았다.

표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단위 : 명)

이용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266 (7.3%)	85 (67.5%)	351 (9.3%)
아니오	3,370 (92.7%)	41 (32.5%)	3,411 (90.7%)
합계	3,636 (100.0%)	126 (100.0%)	3,762 (100.0%)

## 2. 위험요인

### 가. 위험요인

조사대상의 위험요인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험요인 세부영역 점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불안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이 일반학생에 비해 위험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위기청소년은 가정요인에 있어 폭력부모·방임 평균이 2.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9. 위험요인 차이

구분	대 상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 요인	우울·불안	일반학생	3,641	0.92	0.81	.235
		취약·위기청소년	127	1.56	0.89	
	공격·충동· 부주의	일반학생	3,643	1.01	0.69	.000***
		취약·위기청소년	127	1.44	0.82	
가정 요인	폭력부모·방임	일반학생	3,640	0.92	1.45	.000***
		취약·위기청소년	127	2.89	2.28	
	부모간갈등	일반학생	3,638	0.42	0.69	.000***
		취약·위기청소년	127	0.80	0.87	
	문제가족원	일반학생	3,639	0.10	0.31	.000***
		취약·위기청소년	127	0.42	0.71	
또래 요인	비행친구	일반학생	3,639	0.25	0.56	.000***
		취약·위기청소년	127	1.08	1.16	
학교 요인	학교부적응	일반학생	3,642	0.74	0.78	.031*
		취약·위기청소년	127	1.66	0.87	
지역 요인	지역유해환경	일반학생	3,637	0.58	0.71	.000***
		취약·위기청소년	127	1.27	0.91	

\*p<0.05, \*\*p<0.01, \*\*\*p<0.001

## 나. 위기수준 분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0)의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위기수준에 대한 기준점수를 도출하여 표. 와 같은 3수준을 구분하는 분할기준점수를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각각 구한 결과, 일반학생의 경우 고위험군 2.0%, 잠재적 위험군 13.4%, 일반군 84.6%,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 17.6%, 잠재적 위험군 22.3%, 일반군 55.1%였다.

표 20. 청소년 위기 수준 분할기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구 분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고위험군	2.0%	17.6%
잠재적 위험군	13.4%	22.3%
일반군	84.6%	55.1%
합 계	100.0%	100.0%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수준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사대상의 배경변인별 위기수준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시군별

가) 일반학생

표 21은 일반학생의 시군별 위기 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 24.7%, 보령 23.3%, 아산 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위험군의 경우 천안 25.7%, 서산 13.1%, 보령 1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일반학생 시군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시군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천안시	18 (24.7%)	125 (25.7%)	808 (26.4%)	951 (26.2%)
공주시	1 (1.4%)	11 (2.3%)	130 (4.2%)	142 (3.9%)
보령시	17 (23.3%)	58 (11.9%)	337 (11.0%)	412 (11.4%)
아산시	11 (15.1%)	48 (9.9%)	248 (8.1%)	307 (8.5%)
서산시	9 (12.3%)	64 (13.1%)	395 (12.9%)	468 (12.9%)
논산시	1 (1.4%)	13 (2.7%)	146 (4.8%)	160 (4.4%)
계룡시	0 (0.0%)	9 (1.8%)	85 (2.8%)	94 (2.6%)
당진시	3 (4.1%)	30 (6.2%)	168 (5.5%)	201 (5.5%)
금산군	1 (1.4%)	14 (2.9%)	83 (2.7%)	98 (2.7%)
부여군	1 (1.4%)	15 (3.1%)	87 (2.8%)	103 (2.8%)
서천군	1 (1.4%)	16 (3.3%)	86 (2.8%)	103 (2.8%)
청양군	2 (2.7%)	15 (3.1%)	80 (2.6%)	97 (2.7%)
홍성군	1 (1.4%)	14 (2.9%)	86 (2.8%)	101 (2.8%)
예산군	0 (0.0%)	12 (2.5%)	91 (3.0%)	103 (2.8%)
태안군	7 (9.6%)	43 (8.8%)	235 (7.7%)	285 (7.9%)
합계	73 (100.0%)	487 (100.0%)	3,065 (100.0%)	3,625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22는 취약·위기청소년의 시군별 위기 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 26.1%, 보령, 아산 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위험군의 경우 천안 14.7%, 공주, 서천, 홍성 11.8%, 아산, 서산, 태안 8.8%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시군	위험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천안시	6 (26.1%)	5 (14.7%)	11 (15.9%)	22 (17.5%)
공주시	1 (4.3%)	4 (11.8%)	5 (7.2%)	10 (7.9%)
보령시	3 (13.0%)	2 (5.9%)	3 (4.3%)	8 (6.3%)
아산시	3 (13.0%)	3 (8.8%)	3 (4.3%)	9 (7.1%)
서산시	2 (8.7%)	3 (8.8%)	5 (7.2%)	10 (7.9%)
논산시	0 (0.0%)	0 (0.0%)	1 (1.4%)	1 (0.8%)
계룡시	2 (8.7%)	2 (5.9%)	13 (18.8%)	17 (13.5%)
당진시	1 (4.3%)	2 (5.9%)	6 (8.7%)	9 (7.1%)
금산군	0 (0.0%)	0 (0.0%)	1 (1.4%)	1 (0.8%)
부여군	0 (0.0%)	0 (0.0%)	0 (0.0%)	0 (0.0%)
서천군	2 (8.7%)	4 (11.8%)	3 (4.3%)	9 (7.1%)
청양군	0 (0.0%)	1 (2.9%)	0 (0.0%)	1 (0.8%)
홍성군	1 (4.3%)	4 (11.8%)	4 (5.8%)	9 (7.1%)
예산군	0 (0.0%)	1 (2.9%)	4 (5.8%)	5 (4.0%)
태안군	2 (8.7%)	3 (8.8%)	10 (14.5%)	15 (11.9%)
합계	23 (100.0%)	34 (100.0%)	69 (100.0%)	126 (100.0%)

- I · 서론
- II · 이론적배경
- III · 연구방법
- IV · 연구결과
- V · 결론

2) 성별

가) 일반학생

표 23은 일반학생의 성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남성은 56.2%, 여성은 43.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위험군 해당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잠재적위험군의 경우 남성은 48.5%, 여성이 51.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일반학생 성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성별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남성	41 (56.2%)	236 (48.5%)	1,448 (47.2%)	1,725 (47.6%)
여성	32 (43.8%)	251 (51.5%)	1,619 (52.8%)	1,902 (52.4%)
합계	73 (100.0%)	487 (100.0%)	3,067 (100.0%)	3,627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24는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남성은 47.8%, 여성은 52.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위험군 해당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잠재적위험군의 경우 남성 62.9%, 여성 37.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성별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남성	11 (47.8%)	22 (62.9%)	34 (49.3%)	67 (52.8%)
여성	12 (52.2%)	13 (37.1%)	35 (50.7%)	60 (47.2%)
합계	23 (100.0%)	35 (100.0%)	69 (100.0%)	127 (100.0%)



3) 소속기관별

가) 일반학생

표 25는 일반학생의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군에 속하는 비율은 중학교 39.7% 초등학교 29.8% 인문계 고등학교 22.7% 순으로 나타났으나, 잠재적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의 비율은 13.3%와 9.6%로 낮았다. 이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은 중학교 37.8%와 42.5%, 인문계고 35.7%와 34.2% 비율로 나타났다.

표 25.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소속기관	위기에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초등학교	7 (9.6%)	65 (13.3%)	914 (29.8%)	986 (27.2%)
중학교	31 (42.5%)	184 (37.8%)	1,218 (39.7%)	1,433 (39.5%)
인문계 고등학교	25 (34.2%)	174 (35.7%)	697 (22.7%)	896 (24.7%)
전문계(실업계)고 등학교	10 (13.7%)	64 (13.1%)	239 (7.8%)	313 (8.6%)
대안학교	0 (0.0%)	0 (0.0%)	1 (0.0%)	1 (0.0%)
합계	73 (100.0%)	487 (100.0%)	3,069 (100.0%)	3,629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6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군은 꿈드림센터 60.9%,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3.3%, 잠재적 위험군은 꿈드림센터 51.4%,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42.9%, 고위험군은 꿈드림센터 60.9%,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 취약 · 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소속기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검정고시 학원	1 (4.3%)	1 (2.9%)	3 (4.3%)	5 (3.9%)
직업학교	0 (0.0%)	1 (2.9%)	0 (0.0%)	1 (0.8%)
소년원학교	0 (0.0%)	0 (0.0%)	1 (1.4%)	1 (0.8%)
학교나검정고시학 원에 다니지않음	8 (34.8%)	15 (42.9%)	23 (33.3%)	46 (36.2%)
꿈드림센터	14 (60.9%)	18 (51.4%)	42 (60.9%)	74 (58.3%)
합계	23 (100.0%)	35 (100.0%)	69 (100.0%)	127 (100.0%)

## 4) 부모출신국별

## 가) 일반학생

표 27은 일반학생의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위기수준 모두 '두분 모두 한국인'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단위 : 명)

부모출신국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두분 모두 한국인	68 (93.2%)	469 (96.3%)	2,985 (97.4%)	3,522 (97.2%)
두분 모두 외국인	1 (1.4%)	2 (0.4%)	0 (0.0%)	3 (0.1%)
한분만 외국인	1 (1.4%)	9 (1.8%)	56 (1.8%)	66 (1.8%)
두분 모두 새터민	0 (0.0%)	0 (0.0%)	2 (0.1%)	2 (0.1%)
한분만 새터민	0 (0.0%)	0 (0.0%)	3 (0.1%)	3 (0.1%)
두분 모두 중국교포	1 (1.4%)	0 (0.0%)	1 (0.0%)	2 (0.1%)
한분만 중국교포	0 (0.0%)	5 (1.0%)	7 (0.2%)	12 (0.3%)
모르겠음	2 (2.7%)	2 (0.4%)	10 (0.3%)	14 (0.4%)
합계	73 (100.0%)	487 (100.0%)	3,064 (100.0%)	3,624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8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두분 모두 한국인’ 인 경우에서만 나타났으며, ‘한분만 외국인’ 인 경우는 일반군에서만 나타났다.

표 28. 취약 · 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단위 : 명)

부모출신국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두분 모두 한국인	23 (100.0%)	35 (100.0%)	68 (98.6%)	126 (99.2%)
한분만 외국인	0 (0.0%)	0 (0.0%)	1 (1.4%)	1 (0.8%)
합계	23 (100.0%)	35 (100.0%)	69 (100.0%)	127 (100.0%)

5) 가정경제수준별

가) 일반학생

표 2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수준 각 집단 모두 ‘보통’ 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반군은 ‘잘사는 편’ 22.0%, ‘어려운 편’ 5.5%, 잠재적 위험군은 ‘어려운 편’ 16.0%, ‘잘 사는 편’ 11.5%, 고위험군은 ‘어려운 편’ 13.7%, ‘잘 사는 편’ 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매우 어려운 편	6 (8.2%)	18 (3.7%)	14 (0.5%)	38 (1.0%)
어려운 편	10 (13.7%)	78 (16.0%)	170 (5.5%)	258 (7.1%)
보통	48 (65.8%)	326 (66.9%)	2,105 (68.7%)	2,479 (68.4%)
잘 사는 편	7 (9.6%)	56 (11.5%)	675 (22.0%)	738 (20.4%)
매우 잘사는 편	2 (2.7%)	9 (1.8%)	101 (3.3%)	112 (3.1%)
합계	73 (100.0%)	487 (100.0%)	3,065 (100.0%)	3,625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0은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군은 ‘보통’ 62.3%, ‘어려운 편’ 26.1%, 잠재적 위험군은 ‘보통’ 45.7%, ‘어려운 편’ 37.1%, 고위험군은 ‘어려운 편’ 39.1%, ‘보통’ 3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위기에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매우 어려운 편	5 (21.7%)	2 (5.7%)	3 (4.3%)	10 (7.9%)
어려운 편	9 (39.1%)	13 (37.1%)	18 (26.1%)	40 (31.5%)
보통	8 (34.8%)	16 (45.7%)	43 (62.3%)	67 (52.8%)
잘 사는 편	1 (4.3%)	4 (11.4%)	5 (7.2%)	10 (7.9%)
합계	23 (100.0%)	35 (100.0%)	69 (100.0%)	127 (100.0%)

6)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

가) 일반학생

표 31은 일반학생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예’ 43.1%, ‘아니오’ 56.9%, 잠재적위험군 ‘예’ 43.2%, ‘아니오’ 56.7%, 일반군 ‘예’ 49.1%, ‘아니오’ 50.9%로 위기수준 각 집단 모두 ‘아니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 일반학생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인지여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31 (43.1%)	210 (43.2%)	1,504 (49.1%)	1,745 (48.2%)
아니오	41 (56.9%)	276 (56.8%)	1,560 (50.9%)	1,877 (51.8%)
합계	72 (100.0%)	486 (100.0%)	3,064 (100.0%)	3,622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32는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예’ 65.2%, ‘아니오’ 34.8%, 잠재적위험군 ‘예’ 71.4%, ‘아니오’ 28.6%, 일반군 ‘예’ 71.0%, ‘아니오’ 29.0%로 위기수준 각 집단 모두 ‘예’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32.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인지여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15 (65.2%)	25 (71.4%)	49 (71.0%)	89 (70.1%)
아니오	8 (34.8%)	10 (28.6%)	20 (29.0%)	38 (29.9%)
합계	23 (100.0%)	35 (100.0%)	69 (100.0%)	127 (100.0%)

7)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가) 일반학생

표 33은 일반학생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은 3.2%나 4.5%만이 경험 있는 것에 비해 고위험군 중 13.7%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일반학생 청소년전화 1388 이용여부

(단위 : 명)

이용여부	위험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10	22	99	131
	(13.7%)	(4.5%)	(3.2%)	(3.6%)
아니오	63	463	2,964	3,490
	(86.3%)	(95.5%)	(96.8%)	(96.4%)
합계	73	485	3,063	3,621
	(100.0%)	(100.0%)	(100.0%)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34는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26.1%, 잠재적위험군 25.7%, 일반군 20.3%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이용여부	위험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6	9	14	29
	(26.1%)	(25.7%)	(20.3%)	(22.8%)
아니오	17	26	55	98
	(73.9%)	(74.3%)	(79.7%)	(77.2%)
합계	23	35	69	127
	(100.0%)	(100.0%)	(100.0%)	(100.0%)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

가) 일반학생

표 35는 일반학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예’ 55.6%, ‘아니오’ 44.4%, 잠재적위험군 ‘예’ 53.0%, ‘아니오’ 47.0%, 일반군 ‘예’ 58.4%, ‘아니오’ 41.6%로 위기수준 각 집단 모두 ‘예’ 가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일반학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인지여부	위험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40	257	1,792	2,089
	(55.6%)	(53.0%)	(58.4%)	(57.7%)
아니오	32	228	1,274	1,534
	(44.4%)	(47.0%)	(41.6%)	(42.3%)
합계	72	485	3,066	3,623
	(100.0%)	(100.0%)	(100.0%)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36은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예’ 87.0%, ‘아니오’ 13.0%, 잠재적위험군 ‘예’ 85.7%, ‘아니오’ 14.3%, 일반군 ‘예’ 95.6%, ‘아니오’ 4.4%로 각 위기수준 모두 ‘예’ 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인지여부	위험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20	30	65	115
	(87.0%)	(85.7%)	(95.6%)	(91.3%)
아니오	3	5	3	11
	(13.0%)	(14.3%)	(4.4%)	(8.7%)
합계	23	35	68	126
	(100.0%)	(100.0%)	(100.0%)	(100.0%)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

가) 일반학생

표 37은 일반학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별 위기수준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위기 수준 모두 '예'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 중 '예' 비율은 6.4%와 10.5%인 것에 비해 고위험군 중 비율은 26.4%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일반학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별 위기수준

이용여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19 (26.4%)	51 (10.5%)	195 (6.4%)	265 (7.3%)
아니오	53 (73.6%)	435 (89.5%)	2,869 (93.6%)	3,357 (92.7%)
합계	72 (100.0%)	486 (100.0%)	3,064 (100.0%)	3,622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38은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별 위기수준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60.9%, 잠재적위험군 65.7%, 일반군 70.6%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취약·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여부별 위기수준

이용여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예	14 (60.9%)	23 (65.7%)	48 (70.6%)	85 (67.5%)
아니오	9 (39.1%)	12 (34.3%)	20 (29.4%)	41 (32.5%)
합계	23 (100.0%)	35 (100.0%)	68 (100.0%)	126 (100.0%)

## 3. 위기결과

## 가. 위기결과

일반청소년과 취약·위기 청소년의 위기결과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성문제’를 제외한 그 외의 위기결과는 모두 일반청소년과 취약·위기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위기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평균이 일반학생 0.77, 취약·위기청소년 1.18으로 다른 위기결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39.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P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일반학생	3,637	.77	.795	.000***
	취약·위기 청소년	127	1.18	1.032	
술·담배·약물	일반학생	3,636	.13	.428	.000***
	취약·위기 청소년	127	.90	.940	
학교폭력	일반학생	3,637	.09	.285	.000***
	취약·위기 청소년	127	.29	.494	
비행	일반학생	3,636	.04	.242	.000***
	취약·위기 청소년	127	.23	.476	
자살	일반학생	3,635	.21	.519	.002**
	취약·위기 청소년	127	.44	.802	
성문제	일반학생	3,636	.03	.201	.135
	취약·위기 청소년	127	.08	.370	
가출	일반학생	3,634	.04	.232	.000***
	취약·위기 청소년	127	.25	.503	
학업중단	일반학생	3,635	.05	.288	.000***
	취약·위기 청소년	127	.62	.844	

0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

나. 영역별 위기결과 분포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일상생활장애는 주 1~2회 이상, 과다사용과 금단 항목은 거의 매일 나타난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과다사용과 일상생활장애는 모두 체크되어야만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하는 경우가 16.6%로 가장 많았으며, 일상생활장애 8.2%, 금단증상 3.7%으로 나타났다.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문제 모두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과다사용	무	3,048 (83.7%)	97 (76.4%)	3,145 (83.4%)	.024*
	유	595 (16.3%)	30 (23.6%)	625 (16.6%)	
일상생활장애	무	3,360 (92.2%)	99 (78.0%)	3,459 (91.8%)	.000***
	유	283 (7.8%)	28 (22.0%)	311 (8.2%)	
금단	무	3,517 (96.5%)	114 (89.8%)	3,631 (96.3%)	.001**
	유	126 (3.5%)	13 (10.2%)	139 (3.7%)	

\*p<0.05, \*\*p<0.01, \*\*\*p<0.001

2) 약물

약물 중독 문제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술과 담배는 거의 매일하는 경우를, 가스나 마약은 주 1~2회 이상인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중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청소년은 전체의 0.6%,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3.3%로 나타났다. 주 1~2회 이상 가스 등을 사용한 청소년은 0.3%로 나타났다.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각각 음주 경험 0.5%, 4.73%, 흡연 경험 2.6%, 22.6%로 술, 담배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약물 중독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술	무	3,626 (99.5%)	121 (95.3%)	3,747 (99.4%)	.000***
	유	17 (0.5%)	6 (4.7%)	23 (0.6%)	
담배	무	3,548 (97.4%)	99 (78.0%)	3,647 (96.7%)	.000***
	유	95 (2.6%)	28 (22.0%)	123 (3.3%)	
가스나 마약	무	3,632 (99.7%)	125 (98.4%)	3,757 (99.7%)	.069
	유	11 (0.3%)	2 (1.6%)	13 (0.3%)	

\*p<0.05, \*\*p<0.01, \*\*\*p<0.001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 3) 학교폭력

학교폭력 위기결과 수준은 피해의 경우 언어폭력, 따돌림, 가해의 경우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이 거의 매일 이루어질 때를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항목은 주 1~2회 이상 나타날 때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언어폭력 피해경험이 1.0%로 가장 높았고, 따돌림 0.8%, 신체폭력과 사이버 폭력 0.6%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돈이나 물건 빼앗김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역시 언어폭력이 0.8%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 0.5%, 돈이나 물건 빼앗김 0.4%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학교폭력 피해·가해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학교폭력 피해	신체폭력	무	3,625 (99.5%)	123 (96.9%)	3,748 (99.4%)	.006**	
		유	18 (0.5%)	4 (3.1%)	22 (0.6%)		
	언어폭력	무	3,608 (99.0%)	123 (96.9%)	3,731 (99.0%)	.041*	
		유	35 (1.0%)	4 (3.1%)	39 (1.0%)		
	따돌림	무	3,616 (99.3%)	125 (98.4%)	3,741 (99.2%)	.255	
		유	27 (0.7%)	2 (1.6%)	29 (0.8%)		
	돈이나 물건 빼앗김	무	3,629 (99.6%)	123 (96.9%)	3,752 (99.5%)	.003**	
		유	14 (0.4%)	4 (3.1%)	18 (0.5%)		
	사이버폭력	무	3,622 (99.4%)	126 (99.2%)	3,748 (99.4%)	.530	
		유	21 (0.6%)	1 (0.8%)	22 (0.6%)		
	학교폭력 가해	신체폭력	무	3,626 (99.5%)	124 (97.6%)	3,750 (99.5%)	.028*
			유	17 (0.5%)	3 (2.4%)	20 (0.5%)	
언어폭력		무	3,617 (99.3%)	124 (97.6%)	3,741 (99.2%)	.072	
		유	26 (0.7%)	3 (2.4%)	29 (0.8%)		
따돌림		무	3,633 (99.7%)	126 (99.2%)	3,759 (99.7%)	.314	
		유	10 (0.3%)	1 (0.8%)	11 (0.3%)		
돈이나 물건 빼앗음		무	3,631 (99.7%)	125 (98.4%)	3,756 (99.6%)	.079	
		유	12 (0.3%)	2 (1.6%)	14 (0.4%)		
사이버폭력		무	3,638 (99.9%)	127 (100.0%)	3,765 (99.9%)	.842	
		유	5 (0.1%)	0 (0.0%)	5 (0.1%)		

\*p<0.05, \*\*p<0.01, \*\*\*p<0.001

4) 비행

비행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같취와 절도 모두 주 1~2회 이상인 경우를 위기결과로 보았다. 조사대상 전체의 비행 경험을 살펴 본 결과 절취와 절도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은 각 0.3%로 나타났다.

표 43. 비행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같취	무	3,633 (99.7%)	126 (99.2%)	3,759 (99.7%)	.314
	유	10 (0.3%)	1 (0.8%)	11 (0.3%)	
절도	무	3,630 (99.6%)	127 (100.0%)	3,757 (99.7%)	.640
	유	13 (0.4%)	0 (0.0%)	13 (0.3%)	

\*p<0.05, \*\*p<0.01, \*\*\*p<0.001

5) 자살

자살관련 위기결과 수준이 자살계획은 주 1~2회 이상, 자살시도는 2~3번 이상인 경우를 위기 결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의 1.4%가 자살계획을 세워봤고, 2.1%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 모두 취약·위기 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자살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자살계획	무	3,594 (98.7%)	122 (96.1%)	3,716 (98.6%)	.034*
	유	49 (1.3%)	5 (3.9%)	54 (1.4%)	
자살시도	무	3,571 (98.0%)	118 (92.9%)	3,689 (97.9%)	.001**
	유	72 (2.0%)	9 (7.1%)	81 (2.1%)	

\*p<0.05, \*\*p<0.01, \*\*\*p<0.001



6) 성문제

성문제 관련 위기결과의 수준이 성매매, 성폭력 피해, 성폭력 시도,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출산문제 모두 1번 이상인 경우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다.

조사대상의 성문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이 1.3%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 원치 않는 임신출산 1.1%, 성폭력시도 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성폭력시도, 원치 않는 임신출산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성문제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성매매	무	3,605 (99.0%)	122 (96.1%)	3,727 (98.9%)	.014*
	유	38 (1.0%)	5 (3.9%)	43 (1.1%)	
성폭력	무	3,597 (98.7%)	123 (96.9%)	3,720 (98.7%)	.086
	유	46 (1.3%)	4 (3.1%)	50 (1.3%)	
성폭력시도	무	3,608 (99.0%)	123 (96.9%)	3,731 (99.0%)	.041*
	유	35 (1.0%)	4 (3.1%)	39 (1.0%)	
원치않는 임신출산	무	3,610 (99.1%)	120 (94.5%)	3,730 (98.9%)	.000***
	유	33 (0.9%)	7 (5.5%)	40 (1.1%)	

\*p<0.05, \*\*p<0.01, \*\*\*p<0.001

## 7) 가출

가출의 위기결과 수준이 가출경험은 주 1~2회 이상인 경우, 가출팸에서의 생활경험은 2~3번 이상, 가출상태는 현재 가출한 상태인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0.3%는 가출경험이 있으며, 이 중 0.6%는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출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0.5%로 나타났다.

가출팸, 현재 가출상태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가출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가출경험	무	3,632 (99.7%)	125 (98.4%)	3,757 (99.7%)	.069
	유	11 (0.3%)	2 (1.6%)	13 (0.3%)	
가출팸	무	3,624 (99.5%)	123 (96.9%)	3,747 (99.4%)	.007**
	유	19 (0.5%)	4 (3.1%)	23 (0.6%)	
현재 가출상태	무	3,608 (99.6%)	124 (97.6%)	3,732 (99.5%)	.021*
	유	15 (0.4%)	3 (2.4%)	18 (0.5%)	

\*p<0.05, \*\*p<0.01, \*\*\*p<0.001

## 8) 학업중단

학업중단의 위기결과 수준은 현재 학업중단한 상태인 경우를 위기결과로 보았다. 조사 대상 중 3.3%는 현재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학업중단 분포

(단위 :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chi^2$
현재 학업중단 상태	무	3,592 (99.4%)	24 (18.9%)	3,616 (96.7%)	.000***
	유	22 (0.6%)	103 (81.1%)	125 (3.3%)	

\*p<0.05, \*\*p<0.01, \*\*\*p<0.001

나. 일반적 특성별 위기결과 분포

1) 인터넷·스마트폰중독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48은 시군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과다사용은 천안 25.7%, 서산 14.5%, 보령 10.6%, 일상생활 장애는 천안 25.8%, 서산 12.0%, 아산 10.6%, 금단은 천안 27.8%, 아산 12.7%, 서산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시군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시군	(단위 : 명)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800 (26.3%)	153 (25.7%)	880 (26.2%)	73 (25.8%)	918 (26.1%)	35 (27.8%)
공주시	121 (4.0%)	22 (3.7%)	135 (4.0%)	8 (2.8%)	140 (4.0%)	3 (2.4%)
보령시	349 (11.5%)	63 (10.6%)	383 (11.4%)	29 (10.2%)	400 (11.4%)	12 (9.5%)
아산시	259 (8.5%)	50 (8.4%)	279 (8.3%)	30 (10.6%)	293 (8.3%)	16 (12.7%)
서산시	386 (12.7%)	86 (14.5%)	438 (13.1%)	34 (12.0%)	458 (13.0%)	14 (11.1%)
논산시	141 (4.6%)	20 (3.4%)	150 (4.5%)	11 (3.9%)	159 (4.5%)	2 (1.6%)
계룡시	81 (2.7%)	13 (2.2%)	91 (2.7%)	3 (1.1%)	91 (2.6%)	3 (2.4%)
당진시	165 (5.4%)	36 (6.1%)	186 (5.5%)	15 (5.3%)	191 (5.4%)	10 (7.9%)
금산군	87 (2.9%)	11 (1.8%)	89 (2.7%)	9 (3.2%)	95 (2.7%)	3 (2.4%)
부여군	86 (2.8%)	18 (3.0%)	95 (2.8%)	9 (3.2%)	101 (2.9%)	3 (2.4%)
서천군	89 (2.9%)	14 (2.4%)	100 (3.0%)	3 (1.1%)	98 (2.8%)	5 (4.0%)
청양군	82 (2.7%)	15 (2.5%)	86 (2.6%)	11 (3.9%)	94 (2.7%)	3 (2.4%)
홍성군	76 (2.5%)	25 (4.2%)	88 (2.6%)	13 (4.6%)	98 (2.8%)	3 (2.4%)
예산군	89 (2.9%)	15 (2.5%)	94 (2.8%)	10 (3.5%)	100 (2.8%)	4 (3.2%)
태안군	233 (7.7%)	54 (9.1%)	262 (7.8%)	25 (8.8%)	277 (7.9%)	10 (7.9%)
전체	3,044 (100.0%)	595 (100.0%)	3,356 (100.0%)	283 (100.0%)	3,513 (100.0%)	126 (100.0%)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49는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과다사용은 홍성 17.2%, 천안 13.8%, 서천 13.8%, 일상생활장애는 서천 21.4%, 천안, 홍성 14.3%, 보령, 아산 10.7%, 금단은 보령 30.8%, 천안, 아산, 태안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9.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18 (18.6%)	4 (13.8%)	18 (18.4%)	4 (14.3%)	20 (17.7%)	2 (15.4%)
공주시	9 (9.3%)	1 (3.4%)	9 (9.2%)	1 (3.6%)	10 (8.8%)	0 (0.0%)
보령시	5 (5.2%)	3 (10.3%)	5 (5.1%)	3 (10.7%)	4 (3.5%)	4 (30.8%)
아산시	8 (8.2%)	1 (3.4%)	6 (6.1%)	3 (10.7%)	7 (6.2%)	2 (15.4%)
서산시	9 (9.3%)	1 (3.4%)	9 (9.2%)	1 (3.6%)	10 (8.8%)	0 (0.0%)
논산시	0 (0.0%)	1 (3.4%)	1 (1.0%)	0 (0.0%)	1 (0.9%)	0 (0.0%)
계룡시	16 (16.5%)	1 (3.4%)	15 (15.3%)	2 (7.1%)	16 (14.2%)	1 (7.7%)
당진시	7 (7.2%)	2 (6.9%)	8 (8.2%)	1 (3.6%)	9 (8.0%)	0 (0.0%)
금산군	0 (0.0%)	1 (3.4%)	0 (0.0%)	1 (3.6%)	1 (0.9%)	0 (0.0%)
서천군	5 (5.2%)	4 (13.8%)	3 (3.1%)	6 (21.4%)	8 (7.1%)	1 (7.7%)
청양군	1 (1.0%)	0 (0.0%)	1 (1.0%)	0 (0.0%)	1 (0.9%)	0 (0.0%)
홍성군	4 (4.1%)	5 (17.2%)	5 (5.1%)	4 (14.3%)	8 (7.1%)	1 (7.7%)
예산군	3 (3.1%)	2 (6.9%)	4 (4.1%)	1 (3.6%)	5 (4.4%)	0 (0.0%)
태안군	12 (12.4%)	3 (10.3%)	14 (14.3%)	1 (3.6%)	13 (11.5%)	2 (15.4%)
전체	97 (100.0%)	29 (100.0%)	98 (100.0%)	28 (100.0%)	113 (100.0%)	13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50은 성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모두 여성이 과다사용 62.3%, 일상생활장애 61.5%, 금단 76.2%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성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1,508 (49.5%)	224 (37.7%)	1,623 (48.3%)	109 (38.5%)	1,702 (48.4%)	30 (23.8%)
여성	1,539 (50.5%)	370 (62.3%)	1,735 (51.7%)	174 (61.5%)	1,813 (51.6%)	96 (76.2%)
전체	3,047 (100.0%)	594 (100.0%)	3,358 (100.0%)	283 (100.0%)	3,515 (100.0%)	126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51은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과다사용과 일상생활장애는 남성이 60.0%, 67.9%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나, 금단은 여성이 69.2%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49 (50.5%)	18 (60.0%)	48 (48.5%)	19 (67.9%)	63 (55.3%)	4 (30.8%)
여성	48 (49.5%)	12 (40.0%)	51 (51.5%)	9 (32.1%)	51 (44.7%)	9 (69.2%)
전체	97 (100.0%)	30 (100.0%)	99 (100.0%)	28 (100.0%)	114 (100.0%)	13 (10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52는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과다사용은 중학교 46.9%, 인문계고등학교 20.8%, 초등학교 18.3%, 일상생활장애는 중학교 38.5%, 인문계고등학교 33.6%, 초등학교 16.3%, 금단은 중학교 39.7%, 인문계고등학교 31.7%,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초등학교	881 (28.9%)	109 (18.3%)	944 (28.1%)	46 (16.3%)	975 (27.7%)	15 (11.9%)
중학교	1,160 (38.1%)	279 (46.9%)	1,330 (39.6%)	109 (38.5%)	1,389 (39.5%)	50 (39.7%)
인문계 고등학교	775 (25.4%)	124 (20.8%)	804 (23.9%)	95 (33.6%)	859 (24.4%)	40 (31.7%)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31 (7.6%)	83 (13.9%)	281 (8.4%)	33 (11.7%)	293 (8.3%)	21 (16.7%)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전체	3,048 (100.0%)	595 (100.0%)	3,360 (100.0%)	283 (100.0%)	3,517 (100.0%)	126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53은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과다사용은 꿈드림센터 60.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6.7%, 직업학교 3.3%, 일상생활장애는 꿈드림센터 50.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42.9%, 검정고시학원 7.1%, 금단은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53.8%, 꿈드림센터 38.5%, 검정고시학원 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검정고시학원	5 (5.2%)	0 (0.0%)	3 (3.0%)	2 (7.1%)	4 (3.5%)	1 (7.7%)
직업학교	0 (0.0%)	1 (3.3%)	1 (1.0%)	0 (0.0%)	1 (0.9%)	0 (0.0%)
소년원학교	1 (1.0%)	0 (0.0%)	1 (1.0%)	0 (0.0%)	1 (0.9%)	0 (0.0%)
학교나 검정고시학 원에 다니지않음	35 (36.1%)	11 (36.7%)	34 (34.3%)	12 (42.9%)	39 (34.2%)	7 (53.8%)
꿈드림센터	56 (57.7%)	18 (60.0%)	60 (60.6%)	14 (50.0%)	69 (60.5%)	5 (38.5%)
전체	97 (100.0%)	30 (100.0%)	99 (100.0%)	28 (100.0%)	114 (100.0%)	13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54는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각 부분 모두 ‘보통’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다사용은 ‘잘 사는 편’ 17.3%, ‘어려운 편’ 10.3%, 일상생활장애는 ‘잘 사는 편’ 14.1%, ‘어려운 편’ 11.0%, 금단은 ‘잘 사는 편’ 14.3%, ‘어려운 편’ 10.3% 순으로 ‘잘 사는 편’ 이 ‘어려운 편’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4.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27 (0.9%)	11 (1.8%)	34 (1.0%)	4 (1.4%)	36 (1.0%)	2 (1.6%)
어려운 편	197 (6.5%)	61 (10.3%)	227 (6.8%)	31 (11.0%)	245 (7.0%)	13 (10.3%)
보통	2,085 (68.5%)	407 (68.4%)	2,285 (68.1%)	207 (73.1%)	2,402 (68.4%)	90 (71.4%)
잘 사는 편	636 (20.9%)	103 (17.3%)	699 (20.8%)	40 (14.1%)	721 (20.5%)	18 (14.3%)
매우 잘 사는 편	99 (3.3%)	13 (2.2%)	111 (3.3%)	1 (0.4%)	109 (3.1%)	3 (2.4%)
전체	3,044 (100.0%)	595 (100.0%)	3,356 (100.0%)	283 (100.0%)	3,513 (100.0%)	126 (100.0%)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55는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과다사용은 '어려운 편' 40.0%, '보통' 36.7%, '매우 어려운 편' 16.7%, 일상생활장애는 '어려운 편' 46.4%, '보통' 32.1%, '매우 어려운 편' 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단은 '보통' 53.8%, '어려운 편', '매우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5.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5 (5.2%)	5 (16.7%)	5 (5.1%)	5 (17.9%)	8 (7.0%)	2 (15.4%)
어려운 편	28 (28.9%)	12 (40.0%)	27 (27.3%)	13 (46.4%)	38 (33.3%)	2 (15.4%)
보통	56 (57.7%)	11 (36.7%)	58 (58.6%)	9 (32.1%)	60 (52.6%)	7 (53.8%)
잘 사는 편	8 (8.2%)	2 (6.7%)	9 (9.1%)	1 (3.6%)	8 (7.0%)	2 (15.4%)
전체	97 (100.0%)	30 (100.0%)	99 (100.0%)	28 (100.0%)	114 (100.0%)	13 (100.0%)

## 2) 약물

## 가) 시군별

## (1) 일반학생

표 56은 시군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천안시 29.4%, 보령시 23.5%, 아산시, 태안군 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천안시 29.5%, 아산시 16.8%, 보령시 14.7%,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천안시 36.4%, 아산시 27.3%,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시군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948 (26.2%)	5 (29.4%)	925 (26.1%)	28 (29.5%)	949 (26.2%)	4 (36.4%)
공주시	142 (3.9%)	1 (5.9%)	138 (3.9%)	5 (5.3%)	142 (3.9%)	1 (9.1%)
보령시	408 (11.3%)	4 (23.5%)	398 (11.2%)	14 (14.7%)	411 (11.3%)	1 (9.1%)
아산시	307 (8.5%)	2 (11.8%)	293 (8.3%)	16 (16.8%)	306 (8.4%)	3 (27.3%)
서산시	471 (13.0%)	1 (5.9%)	465 (13.1%)	7 (7.4%)	472 (13.0%)	0 (0.0%)
논산시	161 (4.4%)	0 (0.0%)	157 (4.4%)	4 (4.2%)	160 (4.4%)	1 (9.1%)
계룡시	94 (2.6%)	0 (0.0%)	94 (2.7%)	0 (0.0%)	94 (2.6%)	0 (0.0%)
당진시	201 (5.5%)	0 (0.0%)	201 (5.7%)	0 (0.0%)	201 (5.5%)	0 (0.0%)
금산군	98 (2.7%)	0 (0.0%)	96 (2.7%)	2 (2.1%)	98 (2.7%)	0 (0.0%)
부여군	104 (2.9%)	0 (0.0%)	103 (2.9%)	1 (1.1%)	103 (2.8%)	1 (9.1%)
서천군	103 (2.8%)	0 (0.0%)	103 (2.9%)	0 (0.0%)	103 (2.8%)	0 (0.0%)
청양군	97 (2.7%)	0 (0.0%)	95 (2.7%)	2 (2.1%)	97 (2.7%)	0 (0.0%)
홍성군	100 (2.8%)	1 (5.9%)	99 (2.8%)	2 (2.1%)	101 (2.8%)	0 (0.0%)
예산군	103 (2.8%)	1 (5.9%)	102 (2.9%)	2 (2.1%)	104 (2.9%)	0 (0.0%)
태안군	285 (7.9%)	2 (11.8%)	275 (7.8%)	12 (12.6%)	287 (7.9%)	0 (0.0%)
전체	3,622 (100.0%)	17 (100.0%)	3,544 (100.0%)	95 (100.0%)	3,628 (100.0%)	11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57은 시군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천안시, 아산시 33.3%, 예산군, 태안군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천안시 35.7%), 서천군, 태안군 14.3%,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천안시, 아산시 5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7. 시군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20 (16.7%)	2 (33.3%)	12 (12.2%)	10 (35.7%)	21 (16.9%)	1 (50.0%)
공주시	10 (8.3%)	0 (0.0%)	8 (8.2%)	2 (7.1%)	10 (8.1%)	0 (0.0%)
보령시	8 (6.7%)	0 (0.0%)	7 (7.1%)	1 (3.6%)	8 (6.5%)	0 (0.0%)
아산시	7 (5.8%)	2 (33.3%)	8 (8.2%)	1 (3.6%)	8 (6.5%)	1 (50.0%)
서산시	10 (8.3%)	0 (0.0%)	8 (8.2%)	2 (7.1%)	10 (8.1%)	0 (0.0%)
논산시	1 (0.8%)	0 (0.0%)	1 (1.0%)	0 (0.0%)	1 (0.8%)	0 (0.0%)
계룡시	17 (14.2%)	0 (0.0%)	17 (17.3%)	0 (0.0%)	17 (13.7%)	0 (0.0%)
당진시	9 (7.5%)	0 (0.0%)	7 (7.1%)	2 (7.1%)	9 (7.3%)	0 (0.0%)
금산군	1 (0.8%)	0 (0.0%)	1 (1.0%)	0 (0.0%)	1 (0.8%)	0 (0.0%)
서천군	9 (7.5%)	0 (0.0%)	5 (5.1%)	4 (14.3%)	9 (7.3%)	0 (0.0%)
청양군	1 (0.8%)	0 (0.0%)	1 (1.0%)	0 (0.0%)	1 (0.8%)	0 (0.0%)
홍성군	9 (7.5%)	0 (0.0%)	9 (9.2%)	0 (0.0%)	9 (7.3%)	0 (0.0%)
예산군	4 (3.3%)	1 (16.7%)	3 (3.1%)	2 (7.1%)	5 (4.0%)	0 (0.0%)
태안군	14 (11.7%)	1 (16.7%)	11 (11.2%)	4 (14.3%)	15 (12.1%)	0 (0.0%)
전체	120 (100.0%)	6 (100.0%)	98 (100.0%)	28 (100.0%)	124 (100.0%)	2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58은 성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남성이 58.8%,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남성이 81.1%,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남성이 81.8%비율로 각 부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8. 성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1,722 (47.5%)	10 (58.8%)	1,655 (46.7%)	77 (81.1%)	1,723 (47.5%)	9 (81.8%)
여성	1,902 (52.5%)	7 (41.2%)	1,891 (53.3%)	18 (18.9%)	1,907 (52.5%)	2 (18.2%)
전체	3,624 (100.0%)	17 (100.0%)	3,546 (100.0%)	95 (100.0%)	3,630 (100.0%)	1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59는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남성이 60.7%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과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0%로 나타났다.

표 59.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64 (52.9%)	3 (50.0%)	50 (50.5%)	17 (60.7%)	66 (52.8%)	1 (50.0%)
여성	57 (47.1%)	3 (50.0%)	49 (49.5%)	11 (39.3%)	59 (47.2%)	1 (50.0%)
전체	121 (100.0%)	6 (100.0%)	99 (100.0%)	28 (100.0%)	125 (100.0%)	2 (10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60은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인문계고등학교 58.8%,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23.5%, 중학교 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인문계고등학교 62.1%,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26.3%, 중학교 11.6% 순으로 나타났으나,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중학교 45.5%, 인문계고등학교 27.3%, 초등학교 1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0.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소속기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초등학교	989 (27.3%)	1 (5.9%)	990 (27.9%)	0 (0.0%)	988 (27.2%)	2 (18.2%)
중학교	1,437 (39.6%)	2 (11.8%)	1,428 (40.2%)	11 (11.6%)	1,434 (39.5%)	5 (45.5%)
인문계 고등학교	889 (24.5%)	10 (58.8%)	840 (23.7%)	59 (62.1%)	896 (24.7%)	3 (27.3%)
전문계(실업 계)고등학교	310 (8.5%)	4 (23.5%)	289 (8.1%)	25 (26.3%)	313 (8.6%)	1 (9.1%)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전체	3,626 (100.0%)	17 (100.0%)	3,548 (100.0%)	95 (100.0%)	3,632 (100.0%)	11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61은 소속기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66.7%,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75.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21.4%, 검정고시 학원 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각 50.0% 비율로 나타났다.

표 61. 소속기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검정고시 학원	5 (4.1%)	0 (0.0%)	4 (4.0%)	1 (3.6%)	5 (4.0%)	0 (0.0%)
직업학교	1 (0.8%)	0 (0.0%)	1 (1.0%)	0 (0.0%)	1 (0.8%)	0 (0.0%)
소년원학교	1 (0.8%)	0 (0.0%)	1 (1.0%)	0 (0.0%)	1 (0.8%)	0 (0.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않음	44 (36.4%)	2 (33.3%)	40 (40.4%)	6 (21.4%)	45 (36.0%)	1 (50.0%)
꿈드림센터	70 (57.9%)	4 (66.7%)	53 (53.5%)	21 (75.0%)	73 (58.4%)	1 (50.0%)
전체	121 (100.0%)	6 (100.0%)	99 (100.0%)	28 (100.0%)	125 (100.0%)	2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62는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부분 모두 ‘보통’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어려운 편’ 23.5%, ‘매우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매우 잘 사는 편’ 11.8%,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어려운 편’ 20.0%, ‘잘사는 편’ 15.8%,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매우 잘 사는 편’ 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36 (1.0%)	2 (11.8%)	34 (1.0%)	4 (4.2%)	37 (1.0%)	1 (9.1%)
어려운 편	254 (7.0%)	4 (23.5%)	239 (6.7%)	19 (20.0%)	257 (7.1%)	1 (9.1%)
보통	2,485 (68.6%)	7 (41.2%)	2,440 (68.8%)	52 (54.7%)	2,484 (68.5%)	8 (72.7%)
잘 사는 편	737 (20.3%)	2 (11.8%)	724 (20.4%)	15 (15.8%)	739 (20.4%)	0 (0.0%)
매우 잘 사는 편	110 (3.0%)	2 (11.8%)	107 (3.0%)	5 (5.3%)	111 (3.1%)	1 (9.1%)
전체	3,622 (100.0%)	17 (100.0%)	3,544 (100.0%)	95 (100.0%)	3,628 (100.0%)	11 (100.0%)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63은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어려운 편', '보통', '잘 사는 편' 33.3%,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보통' 46.4%, '어려운 편' 28.6%, '매우 어려운 편' 17.9%,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어려운 편', '보통' 각 50.0%비율로 나타났다.

표 63.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10 (8.3%)	0 (0.0%)	5 (5.1%)	5 (17.9%)	10 (8.0%)	0 (0.0%)
어려운 편	38 (31.4%)	2 (33.3%)	32 (32.3%)	8 (28.6%)	39 (31.2%)	1 (50.0%)
보통	65 (53.7%)	2 (33.3%)	54 (54.5%)	13 (46.4%)	66 (52.8%)	1 (50.0%)
잘 사는 편	8 (6.6%)	2 (33.3%)	8 (8.1%)	2 (7.1%)	10 (8.0%)	0 (0.0%)
전체	121 (100.0%)	6 (100.0%)	99 (100.0%)	28 (100.0%)	125 (100.0%)	2 (100.0%)



3) 학교폭력피해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64는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피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보령시, 태안군 16.7%, 언어폭력은 천안시 25.7%, 태안군 17.1%, 공주시 14.3%, 따돌림은 천안시 22.2%, 태안군 14.8%, 보령시, 당진시 홍성군 11.1%, 돈·물건 빼앗김 보령시 28.6%, 천안시 21.4%, 공주시, 아산시 14.3%, 사이버폭력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951 (26.3%)	2 (11.1%)	944 (26.2%)	9 (25.7%)	947 (26.2%)	6 (22.2%)	950 (26.2%)	3 (21.4%)	949 (26.2%)	4 (19.0%)
공주시	141 (3.9%)	2 (11.1%)	138 (3.8%)	5 (14.3%)	142 (3.9%)	1 (3.7%)	141 (3.9%)	2 (14.3%)	139 (3.8%)	4 (19.0%)
보령시	409 (11.3%)	3 (16.7%)	409 (11.3%)	3 (8.6%)	409 (11.3%)	3 (11.1%)	408 (11.3%)	4 (28.6%)	409 (11.3%)	3 (14.3%)
아산시	307 (8.5%)	2 (11.1%)	307 (8.5%)	2 (5.7%)	307 (8.5%)	2 (7.4%)	307 (8.5%)	2 (14.3%)	305 (8.4%)	4 (19.0%)
서산시	472 (13.0%)	0 (0.0%)	470 (13.0%)	2 (5.7%)	470 (13.0%)	2 (7.4%)	472 (13.0%)	0 (0.0%)	471 (13.0%)	1 (4.8%)
논산시	159 (4.4%)	2 (11.1%)	161 (4.5%)	0 (0.0%)	161 (4.5%)	0 (0.0%)	161 (4.4%)	0 (0.0%)	161 (4.4%)	0 (0.0%)
계룡시	94 (2.6%)	0 (0.0%)	94 (2.6%)	0 (0.0%)	94 (2.6%)	0 (0.0%)	93 (2.6%)	1 (7.1%)	94 (2.6%)	0 (0.0%)
당진시	199 (5.5%)	2 (11.1%)	198 (5.5%)	3 (8.6%)	198 (5.5%)	3 (11.1%)	200 (5.5%)	1 (7.1%)	201 (5.6%)	0 (0.0%)
금산군	98 (2.7%)	0 (0.0%)	98 (2.7%)	0 (0.0%)	98 (2.7%)	0 (0.0%)	98 (2.7%)	0 (0.0%)	98 (2.7%)	0 (0.0%)
부여군	104 (2.9%)	0 (0.0%)	103 (2.9%)	1 (2.9%)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서천군	103 (2.8%)	0 (0.0%)	102 (2.8%)	1 (2.9%)	103 (2.9%)	0 (0.0%)	103 (2.8%)	0 (0.0%)	102 (2.8%)	1 (4.8%)
청양군	97 (2.7%)	0 (0.0%)	96 (2.7%)	1 (2.9%)	96 (2.7%)	1 (3.7%)	96 (2.6%)	1 (7.1%)	96 (2.7%)	1 (4.8%)
홍성군	101 (2.8%)	0 (0.0%)	99 (2.7%)	2 (5.7%)	98 (2.7%)	3 (11.1%)	101 (2.8%)	0 (0.0%)	101 (2.8%)	0 (0.0%)
예산군	102 (2.8%)	2 (11.1%)	104 (2.9%)	0 (0.0%)	102 (2.8%)	2 (7.4%)	104 (2.9%)	0 (0.0%)	104 (2.9%)	0 (0.0%)
태안군	284 (7.8%)	3 (16.7%)	281 (7.8%)	6 (17.1%)	283 (7.8%)	4 (14.8%)	287 (7.9%)	0 (0.0%)	284 (7.8%)	3 (14.3%)
전체	3,621 (100.0%)	18 (100.0%)	3,604 (100.0%)	35 (100.0%)	3,612 (100.0%)	27 (100.0%)	3,625 (100.0%)	14 (100.0%)	3,618 (100.0%)	21 (100.0%)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65는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피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아산시 50.0%, 보령시, 서산시 25.0%, 언어폭력은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25.0%비율로 나타났으며, 따돌림은 보령시, 서산시 50.0%, 돈·물건 빼앗김은 아산시에서만 나타났다.

표 65.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22 (18.0%)	0 (0.0%)	22 (18.0%)	0 (0.0%)	22 (17.7%)	0 (0.0%)	22 (18.0%)	0 (0.0%)	17 (17.6%)	0 (0.0%)
공주시	10 (8.2%)	0 (0.0%)	10 (8.2%)	0 (0.0%)	10 (8.1%)	0 (0.0%)	10 (8.2%)	0 (0.0%)	10 (8.8%)	0 (0.0%)
보령시	7 (5.7%)	1 (25.0%)	7 (5.7%)	1 (25.0%)	7 (5.6%)	1 (50.0%)	8 (6.6%)	0 (0.0%)	8 (6.4%)	0 (0.0%)
아산시	7 (5.7%)	2 (50.0%)	9 (7.4%)	0 (0.0%)	9 (7.3%)	0 (0.0%)	5 (4.1%)	4 (100.0%)	8 (6.4%)	1 (100.0%)
서산시	9 (7.4%)	1 (25.0%)	9 (7.4%)	1 (25.0%)	9 (7.3%)	1 (50.0%)	10 (8.2%)	0 (0.0%)	10 (8.0%)	0 (0.0%)
논산시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계룡시	17 (13.9%)	0 (0.0%)	17 (13.9%)	0 (0.0%)	17 (13.7%)	0 (0.0%)	17 (13.9%)	0 (0.0%)	17 (13.6%)	0 (0.0%)
당진시	9 (7.4%)	0 (0.0%)	8 (6.6%)	1 (25.0%)	9 (7.3%)	0 (0.0%)	9 (7.4%)	0 (0.0%)	9 (7.2%)	0 (0.0%)
금산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서천군	9 (7.4%)	0 (0.0%)	9 (7.4%)	0 (0.0%)	9 (7.3%)	0 (0.0%)	9 (7.4%)	0 (0.0%)	9 (7.2%)	0 (0.0%)
청양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홍성군	9 (7.4%)	0 (0.0%)	9 (7.4%)	0 (0.0%)	9 (7.3%)	0 (0.0%)	9 (7.4%)	0 (0.0%)	9 (7.2%)	0 (0.0%)
예산군	5 (4.1%)	0 (0.0%)	5 (4.1%)	0 (0.0%)	5 (4.0%)	0 (0.0%)	5 (4.1%)	0 (0.0%)	5 (4.0%)	0 (0.0%)
태안군	15 (12.3%)	0 (0.0%)	14 (11.5%)	1 (25.0%)	15 (12.1%)	0 (0.0%)	15 (12.3%)	0 (0.0%)	15 (12.0%)	0 (0.0%)
전체	122 (100.0%)	4 (100.0%)	122 (100.0%)	4 (100.0%)	124 (100.0%)	2 (100.0%)	122 (100.0%)	4 (100.0%)	125 (100.0%)	1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66은 성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피해 문제 중 남성이 신체폭력 72.2%, 언어폭력 62.9%, 돈·물건 빼앗김 78.6%, 사이버폭력 57.1%로 높게 나타났으나, 따돌림은 여성이 63.0%로 높게 나타났다.

표 66. 성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1,719 (47.4%)	13 (72.2%)	1,710 (47.4%)	22 (62.9%)	1,722 (47.6%)	10 (37.0%)	1,721 (47.4%)	11 (78.6%)	1,720 (47.5%)	12 (57.1%)
여성	1,904 (52.6%)	5 (27.8%)	1,896 (52.6%)	13 (37.1%)	1,892 (52.4%)	17 (63.0%)	1,906 (52.6%)	3 (21.4%)	1,900 (52.5%)	9 (42.9%)
전체	3,623 (100.0%)	18 (100.0%)	3,606 (100.0%)	35 (100.0%)	3,614 (100.0%)	27 (100.0%)	3,627 (100.0%)	14 (100.0%)	3,620 (100.0%)	2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67은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피해 문제 중 신체폭력과 돈·물건 빼앗김은 여성이 75.0%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 언어폭력은 남성이 75.0%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따돌림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0%로 나타났다.

표 67.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66 (53.7%)	1 (25.0%)	64 (52.0%)	3 (75.0%)	66 (52.8%)	1 (50.0%)	66 (53.7%)	1 (25.0%)	67 (53.2%)	0 (0.0%)
여성	57 (46.3%)	3 (75.0%)	59 (48.0%)	1 (25.0%)	59 (47.2%)	1 (50.0%)	57 (46.3%)	3 (75.0%)	59 (46.8%)	1 (100.0%)
전체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5 (100.0%)	2 (100.0%)	123 (100.0%)	4 (100.0%)	126 (100.0%)	1 (10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68은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중학교 33.3%, 초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27.8%,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은 인문계 고등학교 42.9%, 중학교 31.4%, 초등학교 17.1%, 따돌림은 중학교 40.7%, 초등학교 33.3%, 인문계 고등학교 14.%, 돈·물건 빼앗김은 중학교 71.4%, 인문계 고등학교 21.4%,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7.1%, 사이버폭력 중학교 52.4%, 초등학교 23.8%, 인문계 고등학교 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 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초등학교	985 (27.2%)	5 (27.8%)	984 (27.3%)	6 (17.1%)	981 (27.1%)	9 (33.3%)	990 (27.3%)	0 (0.0%)	985 (27.2%)	5 (23.8%)
중학교	1,433 (39.5%)	6 (33.3%)	1,428 (39.6%)	11 (31.4%)	1,428 (39.5%)	11 (40.7%)	1,429 (39.4%)	10 (71.4%)	1,428 (39.4%)	11 (52.4%)
인문계 고등학교	894 (24.7%)	5 (27.8%)	884 (24.5%)	15 (42.9%)	895 (24.8%)	4 (14.8%)	896 (24.7%)	3 (21.4%)	895 (24.7%)	4 (19.0%)
전문계(실 업계)고등 학교	312 (8.6%)	2 (11.1%)	311 (8.6%)	3 (8.6%)	311 (8.6%)	3 (11.1%)	313 (8.6%)	1 (7.1%)	313 (8.6%)	1 (4.8%)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b>전체</b>	3,625 (100.0%)	18 (100.0%)	3,608 (100.0%)	35 (100.0%)	3,616 (100.0%)	27 (100.0%)	3,629 (100.0%)	14 (100.0%)	3,622 (100.0%)	2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69는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피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50.0%, 검정고시학원, 꿈드림센터 25.0%, 언어폭력은 꿈드림센터 75.0%, 검정고시학원 25.0%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따돌림은 검정고시학원과 꿈드림센터 50.0%비율로 나타났다. 돈·물건 빼앗김과 사이버폭력은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에서만 나타났다.

표 69.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 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검정고시학원	4 (3.3%)	1 (25.0%)	4 (3.3%)	1 (25.0%)	4 (3.2%)	1 (50.0%)	5 (4.1%)	0 (0.0%)	5 (4.0%)	0 (0.0%)
직업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소년원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44 (35.8%)	2 (50.0%)	46 (37.4%)	0 (0.0%)	46 (36.8%)	0 (0.0%)	42 (34.1%)	4 (100.0%)	45 (35.7%)	1 (100.0%)
꿈드림 센터	73 (59.3%)	1 (25.0%)	71 (57.7%)	3 (75.0%)	73 (58.4%)	1 (50.0%)	74 (60.2%)	0 (0.0%)	74 (58.7%)	0 (0.0%)
전체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5 (100.0%)	2 (100.0%)	123 (100.0%)	4 (100.0%)	126 (100.0%)	1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70은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부분 모두 ‘보통’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폭력은 ‘보통’ 을 제외한 모든 수준에서 5.6%, 언어폭력은 ‘어려운 편’ 17.1%, 따돌림은 ‘잘 사는 편’ 22.2%, ‘어려운 편’ 14.8%, 돈·물건 빼앗김은 ‘어려운 편’ 28.6%, ‘매우 어려운 편’ 14.3%, 사이버폭력은 ‘잘 사는 편’ 23.8%, ‘어려운 편’ 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0.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 경제 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37 (1.0%)	1 (5.6%)	37 (1.0%)	1 (2.9%)	35 (1.0%)	3 (11.1%)	36 (1.0%)	2 (14.3%)	37 (1.0%)	1 (4.8%)
어려운 편	257 (7.1%)	1 (5.6%)	252 (7.0%)	6 (17.1%)	254 (7.0%)	4 (14.8%)	254 (7.0%)	4 (28.6%)	256 (7.1%)	2 (9.5%)
보통	2,478 (68.4%)	14 (77.8%)	2,466 (68.4%)	26 (74.3%)	2,479 (68.6%)	13 (48.1%)	2,486 (68.6%)	6 (42.9%)	2,480 (68.5%)	12 (57.1%)
잘 사는 편	738 (20.4%)	1 (5.6%)	738 (20.5%)	1 (2.9%)	733 (20.3%)	6 (22.2%)	738 (20.4%)	1 (7.1%)	734 (20.3%)	5 (23.8%)
매우 잘사는 편	111 (3.1%)	1 (5.6%)	111 (3.1%)	1 (2.9%)	111 (3.1%)	1 (3.7%)	111 (3.1%)	1 (7.1%)	111 (3.1%)	1 (4.8%)
전체	3,621 (100.0%)	18 (100.0%)	3,604 (100.0%)	35 (100.0%)	3,612 (100.0%)	27 (100.0%)	3,625 (100.0%)	14 (100.0%)	3,618 (100.0%)	2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71은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 폭력 피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어려운 편’ 50.0%, ‘보통’, ‘잘 사는 편’ 25.0%, 언어폭력은 ‘보통’ 50.0%,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25.0%, 따돌림은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50.0%, 돈·물건 빼앗김은 ‘보통’ 75%, ‘어려운 편’ 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은 ‘보통’ 에서만 나타났다.

표 71.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 경제 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10 (8.1%)	0 (0.0%)	10 (8.1%)	0 (0.0%)	10 (8.0%)	0 (0.0%)	10 (8.1%)	0 (0.0%)	10 (7.9%)	0 (0.0%)
어려운 편	38 (30.9%)	2 (50.0%)	39 (31.7%)	1 (25.0%)	39 (31.2%)	1 (50.0%)	39 (31.7%)	1 (25.0%)	40 (31.7%)	0 (0.0%)
보통	66 (53.7%)	1 (25.0%)	65 (52.8%)	2 (50.0%)	67 (53.6%)	0 (0.0%)	64 (52.0%)	3 (75.0%)	66 (52.4%)	1 (100.0%)
잘 사는 편	9 (7.3%)	1 (25.0%)	9 (7.3%)	1 (25.0%)	9 (7.2%)	1 (50.0%)	10 (8.1%)	0 (0.0%)	10 (7.9%)	0 (0.0%)
<b>전체</b>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5 (100.0%)	2 (100.0%)	123 (100.0%)	4 (100.0%)	126 (100.0%)	1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4) 학교폭력가해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72는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보령시 29.4%, 천안시, 아산시 17.6%, 언어폭력은 공주시 19.2%, 천안시, 보령시, 태안군 15.4%, 따돌림은 보령시 40.0%, 천안시, 아산시 20.0%, 돈·물건 빼앗음은 천안시, 보령시 33.3%, 아산시 16.7%, 사이버폭력은 천안시 40.0%, 공주시, 아산시, 태안군 20.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950 (26.2%)	3 (17.6%)	949 (26.3%)	4 (15.4%)	951 (26.2%)	2 (20.0%)	949 (26.2%)	4 (33.3%)	951 (26.2%)	2 (40.0%)
공주시	142 (3.9%)	1 (5.9%)	138 (3.8%)	5 (19.2%)	142 (3.9%)	1 (10.0%)	142 (3.9%)	1 (8.3%)	142 (3.9%)	1 (20.0%)
보령시	407 (11.2%)	5 (29.4%)	408 (11.3%)	4 (15.4%)	408 (11.2%)	4 (40.0%)	408 (11.2%)	4 (33.3%)	412 (11.3%)	0 (0.0%)
아산시	306 (8.4%)	3 (17.6%)	306 (8.5%)	3 (11.5%)	307 (8.5%)	2 (20.0%)	307 (8.5%)	2 (16.7%)	308 (8.5%)	1 (20.0%)
서산시	472 (13.0%)	0 (0.0%)	470 (13.0%)	2 (7.7%)	472 (13.0%)	0 (0.0%)	472 (13.0%)	0 (0.0%)	472 (13.0%)	0 (0.0%)
논산시	160 (4.4%)	1 (5.9%)	159 (4.4%)	2 (7.7%)	161 (4.4%)	0 (0.0%)	160 (4.4%)	1 (8.3%)	161 (4.4%)	0 (0.0%)
계룡시	93 (2.6%)	1 (5.9%)	94 (2.6%)	0 (0.0%)	94 (2.6%)	0 (0.0%)	94 (2.6%)	0 (0.0%)	94 (2.6%)	0 (0.0%)
당진시	200 (5.5%)	1 (5.9%)	200 (5.5%)	1 (3.8%)	201 (5.5%)	0 (0.0%)	201 (5.5%)	0 (0.0%)	201 (5.5%)	0 (0.0%)
금산군	98 (2.7%)	0 (0.0%)	97 (2.7%)	1 (3.8%)	98 (2.7%)	0 (0.0%)	98 (2.7%)	0 (0.0%)	98 (2.7%)	0 (0.0%)
부여군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서천군	103 (2.8%)	0 (0.0%)	103 (2.9%)	0 (0.0%)	103 (2.8%)	0 (0.0%)	103 (2.8%)	0 (0.0%)	103 (2.8%)	0 (0.0%)
청양군	97 (2.7%)	0 (0.0%)	97 (2.7%)	0 (0.0%)	97 (2.7%)	0 (0.0%)	97 (2.7%)	0 (0.0%)	97 (2.7%)	0 (0.0%)
홍성군	101 (2.8%)	0 (0.0%)	101 (2.8%)	0 (0.0%)	101 (2.8%)	0 (0.0%)	101 (2.8%)	0 (0.0%)	101 (2.8%)	0 (0.0%)
예산군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태안군	285 (7.9%)	2 (11.8%)	283 (7.8%)	4 (15.4%)	286 (7.9%)	1 (10.0%)	287 (7.9%)	0 (0.0%)	286 (7.9%)	1 (20.0%)
<b>전체</b>	3,622 (100.0%)	17 (100.0%)	3,613 (100.0%)	26 (100.0%)	3,629 (100.0%)	10 (100.0%)	3,627 (100.0%)	12 (100.0%)	3,634 (100.0%)	5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73은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서천군 66.7%, 천안시 33.3%, 언어폭력은 천안시, 당진시, 태안군 33.3%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따돌림은 천안시에서만 나타났으며, 돈·물건 빼앗음은 서천군에서만 나타났다.

표 73.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21 (17.1%)	1 (33.3%)	21 (17.1%)	1 (33.3%)	21 (16.8%)	1 (100.0%)	22 (17.7%)	0 (0.0%)	22 (17.5%)	0 (0.0%)
공주시	10 (8.1%)	0 (0.0%)	10 (8.1%)	0 (0.0%)	10 (8.0%)	0 (0.0%)	10 (8.1%)	0 (0.0%)	10 (7.9%)	0 (0.0%)
보령시	8 (6.5%)	0 (0.0%)	8 (6.5%)	0 (0.0%)	8 (6.4%)	0 (0.0%)	8 (6.5%)	0 (0.0%)	8 (6.3%)	0 (0.0%)
아산시	9 (7.3%)	0 (0.0%)	9 (7.3%)	0 (0.0%)	9 (7.2%)	0 (0.0%)	9 (7.3%)	0 (0.0%)	9 (7.1%)	0 (0.0%)
서산시	10 (8.1%)	0 (0.0%)	10 (8.1%)	0 (0.0%)	10 (8.0%)	0 (0.0%)	10 (8.1%)	0 (0.0%)	10 (7.9%)	0 (0.0%)
논산시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계룡시	17 (13.8%)	0 (0.0%)	17 (13.8%)	0 (0.0%)	17 (13.6%)	0 (0.0%)	17 (13.7%)	0 (0.0%)	17 (13.5%)	0 (0.0%)
당진시	9 (7.3%)	0 (0.0%)	8 (6.5%)	1 (33.3%)	9 (7.2%)	0 (0.0%)	9 (7.3%)	0 (0.0%)	9 (7.1%)	0 (0.0%)
금산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서천군	7 (5.7%)	2 (66.7%)	9 (7.3%)	0 (0.0%)	9 (7.2%)	0 (0.0%)	7 (5.6%)	2 (100.0%)	9 (7.1%)	0 (0.0%)
청양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홍성군	9 (7.3%)	0 (0.0%)	9 (7.3%)	0 (0.0%)	9 (7.2%)	0 (0.0%)	9 (7.3%)	0 (0.0%)	9 (7.1%)	0 (0.0%)
예산군	5 (4.1%)	0 (0.0%)	5 (4.1%)	0 (0.0%)	5 (4.0%)	0 (0.0%)	5 (4.0%)	0 (0.0%)	5 (4.0%)	0 (0.0%)
태안군	15 (12.2%)	0 (0.0%)	14 (11.4%)	1 (33.3%)	15 (12.0%)	0 (0.0%)	15 (12.1%)	0 (0.0%)	15 (11.9%)	0 (0.0%)
<b>전체</b>	123 (100.0%)	3 (100.0%)	123 (100.0%)	3 (100.0%)	125 (100.0%)	1 (100.0%)	124 (100.0%)	2 (100.0%)	126 (100.0%)	0 (0.0%)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74는 성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성이 신체폭력 82.4%, 언어폭력 80.8%, 따돌림 70.0%, 돈·물건 빼앗음 75.0%, 사이버폭력 100.0%로 각 부분 모두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4. 성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1,718 (47.4%)	14 (82.4%)	1,711 (47.3%)	21 (80.8%)	1,725 (47.5%)	7 (70.0%)	1,723 (47.5%)	9 (75.0%)	1,727 (47.5%)	5 (100.0%)
여성	1,906 (52.6%)	3 (17.6%)	1,904 (52.7%)	5 (19.2%)	1,906 (52.5%)	3 (30.0%)	1,906 (52.5%)	3 (25.0%)	1,909 (52.5%)	0 (0.0%)
전체	3,624 (100.0%)	17 (100.0%)	3,615 (100.0%)	26 (100.0%)	3,631 (100.0%)	10 (100.0%)	3,629 (100.0%)	12 (100.0%)	3,636 (100.0%)	5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75는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성이 신체폭력 100.0%, 언어폭력 66.7%, 돈·물건 빼앗음 1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따돌림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

표 75.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64 (51.6%)	3 (100.0%)	65 (52.4%)	2 (66.7%)	67 (53.2%)	0 (0.0%)	65 (52.0%)	2 (100.0%)	67 (52.8%)	0 (0.0%)
여성	60 (48.4%)	0 (0.0%)	59 (47.6%)	1 (33.3%)	59 (46.8%)	1 (100.0%)	60 (48.0%)	0 (0.0%)	60 (47.2%)	0 (0.0%)
전체	124 (100.0%)	3 (100.0%)	124 (100.0%)	3 (100.0%)	126 (100.0%)	1 (100.0%)	125 (100.0%)	2 (100.0%)	127 (100.0%)	0 (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76은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가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중학교 47.1%, 인문계 고등학교 29.4%, 초등학교 17.6%, 언어폭력은 중학교 46.2%, 인문계 고등학교 34.6%,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1.5%, 돈·물건 빼앗음은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33.3%, 초등학교 25.0%, 사이버폭력은 인문계 고등학교 60.0%, 중학교,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20.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6.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 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초등학교	987 (27.2%)	3 (17.6%)	988 (27.3%)	2 (7.7%)	990 (27.3%)	0 (0.0%)	987 (27.2%)	3 (25.0%)	990 (27.2%)	0 (0.0%)
중학교	1,431 (39.5%)	8 (47.1%)	1,427 (39.5%)	12 (46.2%)	1,434 (39.5%)	5 (50.0%)	1,435 (39.5%)	4 (33.3%)	1,438 (39.5%)	1 (20.0%)
인문계 고등학교	894 (24.7%)	5 (29.4%)	890 (24.6%)	9 (34.6%)	895 (24.6%)	4 (40.0%)	895 (24.6%)	4 (33.3%)	896 (24.6%)	3 (60.0%)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313 (8.6%)	1 (5.9%)	311 (8.6%)	3 (11.5%)	313 (8.6%)	1 (10.0%)	313 (8.6%)	1 (8.3%)	313 (8.6%)	1 (20.0%)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b>전체</b>	3,626 (100.0%)	17 (100.0%)	3,617 (100.0%)	26 (100.0%)	3,633 (100.0%)	10 (100.0%)	3,631 (100.0%)	12 (100.0%)	3,638 (100.0%)	5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77은 소속기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부분 모두 꿈드림센터에서만 나타났다.

표 77. 소속기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 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 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검정고시 학원	5 (4.0%)	0 (0.0%)	5 (4.0%)	0 (0.0%)	5 (4.0%)	0 (0.0%)	5 (4.0%)	0 (0.0%)	5 (3.9%)	0 (0.0%)
직업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소년원 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46 (37.1%)	0 (0.0%)	46 (37.1%)	0 (0.0%)	46 (36.5%)	0 (0.0%)	46 (36.8%)	0 (0.0%)	46 (36.2%)	0 (0.0%)
꿈드림 센터	71 (57.3%)	3 (100.0%)	71 (57.3%)	3 (100.0%)	73 (57.9%)	1 (100.0%)	72 (57.6%)	2 (100.0%)	74 (58.3%)	0 (0.0%)
<b>전체</b>	124 (100.0%)	3 (100.0%)	124 (100.0%)	3 (100.0%)	126 (100.0%)	1 (100.0%)	125 (100.0%)	2 (100.0%)	127 (100.0%)	0 (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78은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부분 모두 ‘보통’ 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폭력은 ‘잘사는 편’ 23.5%, 언어폭력은 ‘잘 사는 편’ 19.2%, 돈·물건 빼앗음은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16.7%으로 나타났다.

표 78.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 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37 (1.0%)	1 (5.9%)	37 (1.0%)	1 (3.8%)	37 (1.0%)	1 (10.0%)	37 (1.0%)	1 (8.3%)	37 (1.0%)	1 (20.0%)
어려운 편	257 (7.1%)	1 (5.9%)	257 (7.1%)	1 (3.8%)	257 (7.1%)	1 (10.0%)	256 (7.1%)	2 (16.7%)	258 (7.1%)	0 (0.0%)
보통	2,482 (68.5%)	10 (58.8%)	2,475 (68.5%)	17 (65.4%)	2,486 (68.5%)	6 (60.0%)	2,486 (68.5%)	6 (50.0%)	2,490 (68.5%)	2 (40.0%)
잘 사는 편	735 (20.3%)	4 (23.5%)	734 (20.3%)	5 (19.2%)	738 (20.3%)	1 (10.0%)	737 (20.3%)	2 (16.7%)	738 (20.3%)	1 (20.0%)
매우 잘사는 편	111 (3.1%)	1 (5.9%)	110 (3.0%)	2 (7.7%)	111 (3.1%)	1 (10.0%)	111 (3.1%)	1 (8.3%)	111 (3.1%)	1 (20.0%)
<b>전체</b>	3,622 (100.0%)	17 (100.0%)	3,613 (100.0%)	26 (100.0%)	3,629 (100.0%)	10 (100.0%)	3,627 (100.0%)	12 (100.0%)	3,634 (100.0%)	5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79는 가정경제수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문제 중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은 ‘보통’ 이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따돌림은 ‘매우 어려운 편’ 에서만 나타났으며, 돈 · 물건 빼앗음은 ‘매우 어려운 편’ , ‘보통’ 각 50%로 나타났다.

표 79. 가정경제수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 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9 (7.3%)	1 (33.3%)	9 (7.3%)	1 (33.3%)	9 (7.1%)	1 (100.0%)	9 (7.2%)	1 (50.0%)	10 (7.9%)	0 (0.0%)
어려운 편	40 (32.3%)	0 (0.0%)	40 (32.3%)	0 (0.0%)	40 (31.7%)	0 (0.0%)	40 (32.0%)	0 (0.0%)	40 (31.5%)	0 (0.0%)
보통	65 (52.4%)	2 (66.7%)	65 (52.4%)	2 (66.7%)	67 (53.2%)	0 (0.0%)	66 (52.8%)	1 (50.0%)	67 (52.8%)	0 (0.0%)
잘 사는 편	10 (8.1%)	0 (0.0%)	10 (8.1%)	0 (0.0%)	10 (7.9%)	0 (0.0%)	10 (8.0%)	0 (0.0%)	10 (7.9%)	0 (0.0%)
전체	124 (100.0%)	3 (100.0%)	124 (100.0%)	3 (100.0%)	126 (100.0%)	1 (100.0%)	125 (100.0%)	2 (100.0%)	127 (100.0%)	0 (0.0%)

5) 비행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80은 시군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 문제 중 갈취는 보령시 40.0%, 천안시 30.0%, 절도는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2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0. 시군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천안시	950 (26.2%)	3 (30.0%)	950 (26.2%)	3 (23.1%)
공주시	142 (3.9%)	1 (10.0%)	142 (3.9%)	1 (7.7%)
보령시	408 (11.2%)	4 (40.0%)	409 (11.3%)	3 (23.1%)
아산시	308 (8.5%)	1 (10.0%)	306 (8.4%)	3 (23.1%)
서산시	472 (13.0%)	0 (0.0%)	472 (13.0%)	0 (0.0%)
논산시	160 (4.4%)	1 (10.0%)	160 (4.4%)	1 (7.7%)
계룡시	94 (2.6%)	0 (0.0%)	94 (2.6%)	0 (0.0%)
당진시	201 (5.5%)	0 (0.0%)	200 (5.5%)	1 (7.7%)
금산군	98 (2.7%)	0 (0.0%)	98 (2.7%)	0 (0.0%)
부여군	104 (2.9%)	0 (0.0%)	104 (2.9%)	0 (0.0%)
서천군	103 (2.8%)	0 (0.0%)	103 (2.8%)	0 (0.0%)
청양군	97 (2.7%)	0 (0.0%)	97 (2.7%)	0 (0.0%)
홍성군	101 (2.8%)	0 (0.0%)	100 (2.8%)	1 (7.7%)
예산군	104 (2.9%)	0 (0.0%)	104 (2.9%)	0 (0.0%)
태안군	287 (7.9%)	0 (0.0%)	287 (7.9%)	0 (0.0%)
<b>전체</b>	<b>3,629 (100.0%)</b>	<b>10 (100.0%)</b>	<b>3,626 (100.0%)</b>	<b>13 (100.0%)</b>

(2) 취약·위기청소년

표 81은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 문제 중 갈취는 서천군에서만 나타났다.

표 81.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천안시	22 (17.6%)	0 (0.0%)	22 (17.5%)	0 (0.0%)
공주시	10 (8.0%)	0 (0.0%)	10 (7.9%)	0 (0.0%)
보령시	8 (6.4%)	0 (0.0%)	8 (6.3%)	0 (0.0%)
아산시	9 (7.2%)	0 (0.0%)	9 (7.1%)	0 (0.0%)
서산시	10 (8.0%)	0 (0.0%)	10 (7.9%)	0 (0.0%)
논산시	1 (0.8%)	0 (0.0%)	1 (0.8%)	0 (0.0%)
계룡시	17 (13.6%)	0 (0.0%)	17 (13.5%)	0 (0.0%)
당진시	9 (7.2%)	0 (0.0%)	9 (7.1%)	0 (0.0%)
금산군	1 (0.8%)	0 (0.0%)	1 (0.8%)	0 (0.0%)
서천군	8 (6.4%)	1 (100.0%)	9 (7.1%)	0 (0.0%)
청양군	1 (0.8%)	0 (0.0%)	1 (0.8%)	0 (0.0%)
홍성군	9 (7.2%)	0 (0.0%)	9 (7.1%)	0 (0.0%)
예산군	5 (4.0%)	0 (0.0%)	5 (4.0%)	0 (0.0%)
태안군	15 (12.0%)	0 (0.0%)	15 (11.9%)	0 (0.0%)
<b>전체</b>	125 (100.0%)	1 (100.0%)	126 (100.0%)	0 (0.0%)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82는 성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성이 갈취는 90.0%, 절도는 76.9%비율로 각 부분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2. 성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남성	1,723 (47.5%)	9 (90.0%)	1,722 (47.5%)	10 (76.9%)
여성	1,908 (52.5%)	1 (10.0%)	1,906 (52.5%)	3 (23.1%)
전체	3,631 (100.0%)	10 (100.0%)	3,628 (100.0%)	13 (100.0%)

(1) 취약 · 위기청소년

표 83은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 문제 중 갈취는 남성에게서만 나타났다.

표 83.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남성	66 (52.4%)	1 (100.0%)	67 (52.8%)	0 (0.0%)
여성	60 (47.6%)	0 (0.0%)	60 (47.2%)	0 (0.0%)
전체	126 (100.0%)	1 (100.0%)	127 (100.0%)	0 (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84는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 문제 중 갈취는 인문계 고등학교 40.0%, 초등학교 30.0%, 중학교 20.0%, 절도는 중학교 38.5%, 인문계 고등학교 30.8%, 초등학교 23.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초등학교	987 (27.2%)	3 (30.0%)	987 (27.2%)	3 (23.1%)
중학교	1,437 (39.6%)	2 (20.0%)	1,434 (39.5%)	5 (38.5%)
인문계 고등학교	895 (24.6%)	4 (40.0%)	895 (24.7%)	4 (30.8%)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313 (8.6%)	1 (10.0%)	313 (8.6%)	1 (7.7%)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b>전체</b>	<b>3,633 (100.0%)</b>	<b>10 (100.0%)</b>	<b>3,630 (100.0%)</b>	<b>13 (100.0%)</b>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85는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 문제 중 갈취는 꿈드림센터에서만 나타났다.

표 85.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검정고시 학원	5 (4.0%)	0 (0.0%)	5 (3.9%)	0 (0.0%)
직업학교	1 (0.8%)	0 (0.0%)	1 (0.8%)	0 (0.0%)
소년원학교	1 (0.8%)	0 (0.0%)	1 (0.8%)	0 (0.0%)
학교나검정고시학원에 다니다지않음	46 (36.5%)	0 (0.0%)	46 (36.2%)	0 (0.0%)
꿈드림센터	73 (57.9%)	1 (100.0%)	74 (58.3%)	0 (0.0%)
전체	126 (100.0%)	1 (100.0%)	127 (100.0%)	0 (0.0%)

마)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86은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 문제 중 갈취는 ‘보통’ 70.0%, ‘매우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10.0%, 절도는 ‘보통’ 61.5%, ‘매우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15.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37 (1.0%)	1 (10.0%)	36 (1.0%)	2 (15.4%)
어려운 편	258 (7.1%)	0 (0.0%)	258 (7.1%)	0 (0.0%)
보통	2,485 (68.5%)	7 (70.0%)	2,484 (68.5%)	8 (61.5%)
잘 사는 편	738 (20.3%)	1 (10.0%)	737 (20.3%)	2 (15.4%)
매우 잘사는 편	111 (3.1%)	1 (10.0%)	111 (3.1%)	1 (7.7%)
<b>전체</b>	<b>3,629</b> <b>(100.0%)</b>	<b>10</b> <b>(100.0%)</b>	<b>3,626</b> <b>(100.0%)</b>	<b>13</b> <b>(100.0%)</b>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87은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 문제 중 갈취는 ‘보통’에서만 나타났다.

표 87.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10 (7.9%)	0 (0.0%)	10 (7.9%)	0 (0.0%)
어려운 편	40 (31.7%)	0 (0.0%)	40 (31.5%)	0 (0.0%)
보통	66 (52.4%)	1 (100.0%)	67 (52.8%)	0 (0.0%)
잘 사는 편	10 (7.9%)	0 (0.0%)	10 (7.9%)	0 (0.0%)
전체	126 (100.0%)	1 (100.0%)	127 (100.0%)	0 (0.0%)

6) 자살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88은 시군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문제 중 자살 계획은 천안시 30.6%, 보령시, 서산시 12.2%, 자살시도는 천안시, 보령시 23.6%, 서산시 1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8. 시군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천안시	938 (26.1%)	15 (30.6%)	936 (26.2%)	17 (23.6%)
공주시	140 (3.9%)	3 (6.1%)	142 (4.0%)	1 (1.4%)
보령시	406 (11.3%)	6 (12.2%)	395 (11.1%)	17 (23.6%)
아산시	305 (8.5%)	4 (8.2%)	302 (8.5%)	7 (9.7%)
서산시	466 (13.0%)	6 (12.2%)	464 (13.0%)	8 (11.1%)
논산시	160 (4.5%)	1 (2.0%)	160 (4.5%)	1 (1.4%)
계룡시	93 (2.6%)	1 (2.0%)	93 (2.6%)	1 (1.4%)
당진시	199 (5.5%)	2 (4.1%)	197 (5.5%)	4 (5.6%)
금산군	97 (2.7%)	1 (2.0%)	97 (2.7%)	1 (1.4%)
부여군	104 (2.9%)	0 (0.0%)	103 (2.9%)	1 (1.4%)
서천군	103 (2.9%)	0 (0.0%)	101 (2.8%)	2 (2.8%)
청양군	95 (2.6%)	2 (4.1%)	95 (2.7%)	2 (2.8%)
홍성군	97 (2.7%)	4 (8.2%)	99 (2.8%)	2 (2.8%)
예산군	103 (2.9%)	1 (2.0%)	103 (2.9%)	1 (1.4%)
태안군	284 (7.9%)	3 (6.1%)	280 (7.8%)	7 (9.7%)
<b>전체</b>	3,590 (100.0%)	49 (100.0%)	3,567 (100.0%)	7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89는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문제 중 자살계획은 천안시 40.0%,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20.0%, 자살시도는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22.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9.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천안시	20 (16.5%)	2 (40.0%)	20 (17.1%)	2 (22.2%)
공주시	10 (8.3%)	0 (0.0%)	10 (8.5%)	0 (0.0%)
보령시	7 (5.8%)	1 (20.0%)	6 (5.1%)	2 (22.2%)
아산시	8 (6.6%)	1 (20.0%)	8 (6.8%)	1 (11.1%)
서산시	10 (8.3%)	0 (0.0%)	8 (6.8%)	2 (22.2%)
논산시	1 (0.8%)	0 (0.0%)	1 (0.9%)	0 (0.0%)
계룡시	16 (13.2%)	1 (20.0%)	17 (14.5%)	0 (0.0%)
당진시	9 (7.4%)	0 (0.0%)	8 (6.8%)	1 (11.1%)
금산군	1 (0.8%)	0 (0.0%)	1 (0.9%)	0 (0.0%)
서천군	9 (7.4%)	0 (0.0%)	9 (7.7%)	0 (0.0%)
청양군	1 (0.8%)	0 (0.0%)	1 (0.9%)	0 (0.0%)
홍성군	9 (7.4%)	0 (0.0%)	8 (6.8%)	1 (11.1%)
예산군	5 (4.1%)	0 (0.0%)	5 (4.3%)	0 (0.0%)
태안군	15 (12.4%)	0 (0.0%)	15 (12.8%)	0 (0.0%)
<b>전체</b>	121 (100.0%)	5 (100.0%)	117 (100.0%)	9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90은 성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여성이 자살계획 71.4%, 자살시도 69.4%비율로 각 부분 모두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0. 성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남성	1,718 (47.8%)	14 (28.6%)	1,710 (47.9%)	22 (30.6%)
여성	1,874 (52.2%)	35 (71.4%)	1,859 (52.1%)	50 (69.4%)
<b>전체</b>	3,592 (100.0%)	49 (100.0%)	3,569 (100.0%)	7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91은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부분 모두 여성에서만 나타났다.

표 91.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남성	67 (54.9%)	0 (0.0%)	67 (56.8%)	0 (0.0%)
여성	55 (45.1%)	5 (100.0%)	51 (43.2%)	9 (100.0%)
<b>전체</b>	122 (100.0%)	5 (100.0%)	118 (100.0%)	9 (100.0%)



## 다) 소속기관별

## (1) 일반학생

표 92는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문제 중 자살 계획은 중학교 36.7%, 인문계 고등학교 30.6%, 초등학교 26.5%, 자살시도는 중학교 52.8%, 인문계 고등학교 23.6%, 초등학교 15.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2.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초등학교	977 (27.2%)	13 (26.5%)	979 (27.4%)	11 (15.3%)
중학교	1,421 (39.5%)	18 (36.7%)	1,401 (39.2%)	38 (52.8%)
인문계 고등학교	884 (24.6%)	15 (30.6%)	882 (24.7%)	17 (23.6%)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311 (8.7%)	3 (6.1%)	308 (8.6%)	6 (8.3%)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b>전체</b>	3,594 (100.0%)	49 (100.0%)	3,571 (100.0%)	72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93은 소속기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문제 중 자살계획 꿈드림센터 60.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40.0%, 자살시도는 꿈드림센터 55.6%,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44.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3. 소속기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검정고시 학원	5 (4.1%)	0 (0.0%)	5 (4.2%)	0 (0.0%)
직업학교	1 (0.8%)	0 (0.0%)	1 (0.8%)	0 (0.0%)
소년원학교	1 (0.8%)	0 (0.0%)	1 (0.8%)	0 (0.0%)
학교나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않음	44 (36.1%)	2 (40.0%)	42 (35.6%)	4 (44.4%)
꿈드림센터	71 (58.2%)	3 (60.0%)	69 (58.5%)	5 (55.6%)
<b>전체</b>	122 (100.0%)	5 (100.0%)	118 (100.0%)	9 (100.0%)

## 라) 가정경제수준별

## (1) 일반학생

표 94는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문제 중 자살계획은 ‘보통’ 51.0%, ‘잘 사는 편’ 26.5%, ‘어려운 편’ 14.3%, 자살시도는 ‘보통’ 63.9%, ‘잘 사는 편’ 16.7%, ‘어려운 편’ 9.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4.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36 (1.0%)	2 (4.1%)	34 (1.0%)	4 (5.6%)
어려운 편	251 (7.0%)	7 (14.3%)	251 (7.0%)	7 (9.7%)
보통	2,467 (68.7%)	25 (51.0%)	2,446 (68.6%)	46 (63.9%)
잘 사는 편	726 (20.2%)	13 (26.5%)	727 (20.4%)	12 (16.7%)
매우 잘사는 편	110 (3.1%)	2 (4.1%)	109 (3.1%)	3 (4.2%)
<b>전체</b>	3,590 (100.0%)	49 (100.0%)	3,567 (100.0%)	7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95는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문제 중 자살계획은 ‘어려운 편’ 60.0%, ‘매우 어려운 편’, ‘보통’ 20.0%, 자살시도는 ‘어려운 편’ 55.6%, ‘보통’ 33.3%, ‘매우 어려운 편’ 1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5.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9 (7.4%)	1 (20.0%)	9 (7.6%)	1 (11.1%)
어려운 편	37 (30.3%)	3 (60.0%)	35 (29.7%)	5 (55.6%)
보통	66 (54.1%)	1 (20.0%)	64 (54.2%)	3 (33.3%)
잘 사는 편	10 (8.2%)	0 (0.0%)	10 (8.5%)	0 (0.0%)
<b>전체</b>	122 (100.0%)	5 (100.0%)	118 (100.0%)	9 (100.0%)

7) 성문제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96은 시군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보령시 48.6%, 천안시 21.6%, 태안군 10.8%, 성폭력피해는 보령시 46.7%, 천안시 20.0%, 아산시 8.9%, 성폭력시도는 보령시 50.0%, 천안시 14.7%, 아산시 11.8%, 임신출산은 보령시 53.1%,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12.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6. 시군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945 (26.2%)	8 (21.6%)	944 (26.3%)	9 (20.0%)	948 (26.3%)	5 (14.7%)	949 (26.3%)	4 (12.5%)
공주시	143 (4.0%)	0 (0.0%)	142 (4.0%)	1 (2.2%)	143 (4.0%)	0 (0.0%)	143 (4.0%)	0 (0.0%)
보령시	394 (10.9%)	18 (48.6%)	391 (10.9%)	21 (46.7%)	395 (11.0%)	17 (50.0%)	395 (11.0%)	17 (53.1%)
아산시	306 (8.5%)	3 (8.1%)	305 (8.5%)	4 (8.9%)	305 (8.5%)	4 (11.8%)	305 (8.5%)	4 (12.5%)
서산시	469 (13.0%)	3 (8.1%)	469 (13.0%)	3 (6.7%)	469 (13.0%)	3 (8.8%)	468 (13.0%)	4 (12.5%)
논산시	161 (4.5%)	0 (0.0%)	160 (4.5%)	1 (2.2%)	160 (4.4%)	1 (2.9%)	160 (4.4%)	1 (3.1%)
계룡시	93 (2.6%)	1 (2.7%)	91 (2.5%)	3 (6.7%)	93 (2.6%)	1 (2.9%)	94 (2.6%)	0 (0.0%)
당진시	201 (5.6%)	0 (0.0%)	200 (5.6%)	1 (2.2%)	201 (5.6%)	0 (0.0%)	200 (5.5%)	1 (3.1%)
금산군	98 (2.7%)	0 (0.0%)	98 (2.7%)	0 (0.0%)	98 (2.7%)	0 (0.0%)	98 (2.7%)	0 (0.0%)
부여군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서천군	103 (2.9%)	0 (0.0%)	103 (2.9%)	0 (0.0%)	103 (2.9%)	0 (0.0%)	102 (2.8%)	1 (3.1%)
청양군	97 (2.7%)	0 (0.0%)	97 (2.7%)	0 (0.0%)	97 (2.7%)	0 (0.0%)	97 (2.7%)	0 (0.0%)
홍성군	101 (2.8%)	0 (0.0%)	101 (2.8%)	0 (0.0%)	101 (2.8%)	0 (0.0%)	101 (2.8%)	0 (0.0%)
예산군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104 (2.9%)	0 (0.0%)
태안군	283 (7.9%)	4 (10.8%)	285 (7.9%)	2 (4.4%)	284 (7.9%)	3 (8.8%)	287 (8.0%)	0 (0.0%)
<b>전체</b>	3,602 (100.0%)	37 (100.0%)	3,594 (100.0%)	45 (100.0%)	3,605 (100.0%)	34 (100.0%)	3,607 (100.0%)	32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97은 시군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공주시, 예산군 40.0%, 천안시 20.0%, 성폭력피해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예산군 25.0%, 성폭력시도는 공주시 50.0%, 천안시, 예산군 25.0%, 임신출산은 천안시, 공주시 28.6%, 계룡시, 당진시, 예산군 14.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7. 시군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천안시	21 (17.4%)	1 (20.0%)	21 (17.2%)	1 (25.0%)	21 (17.2%)	1 (25.0%)	20 (16.8%)	2 (28.6%)
공주시	8 (6.6%)	2 (40.0%)	9 (7.4%)	1 (25.0%)	8 (6.6%)	2 (50.0%)	8 (6.7%)	2 (28.6%)
보령시	8 (6.6%)	0 (0.0%)	8 (6.6%)	0 (0.0%)	8 (6.6%)	0 (0.0%)	8 (6.7%)	0 (0.0%)
아산시	9 (7.4%)	0 (0.0%)	8 (6.6%)	1 (25.0%)	9 (7.4%)	0 (0.0%)	9 (7.6%)	0 (0.0%)
서산시	10 (8.3%)	0 (0.0%)	10 (8.2%)	0 (0.0%)	10 (8.2%)	0 (0.0%)	10 (8.4%)	0 (0.0%)
논산시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계룡시	17 (14.0%)	0 (0.0%)	17 (13.9%)	0 (0.0%)	17 (13.9%)	0 (0.0%)	16 (13.4%)	1 (14.3%)
당진시	9 (7.4%)	0 (0.0%)	9 (7.4%)	0 (0.0%)	9 (7.4%)	0 (0.0%)	8 (6.7%)	1 (14.3%)
금산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서천군	9 (7.4%)	0 (0.0%)	9 (7.4%)	0 (0.0%)	9 (7.4%)	0 (0.0%)	9 (7.6%)	0 (0.0%)
청양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홍성군	9 (7.4%)	0 (0.0%)	9 (7.4%)	0 (0.0%)	9 (7.4%)	0 (0.0%)	9 (7.6%)	0 (0.0%)
예산군	3 (2.5%)	2 (40.0%)	4 (3.3%)	1 (25.0%)	4 (3.3%)	1 (25.0%)	4 (3.4%)	1 (14.3%)
태안군	15 (12.4%)	0 (0.0%)	15 (12.3%)	0 (0.0%)	15 (12.3%)	0 (0.0%)	15 (12.6%)	0 (0.0%)
<b>전체</b>	121 (100.0%)	5 (100.0%)	122 (100.0%)	4 (100.0%)	122 (100.0%)	4 (100.0%)	119 (100.0%)	7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98은 성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성이 성매매 68.4%, 성폭력피해 60.9%, 성폭력시도 68.6%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8. 성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1,706 (47.3%)	26 (68.4%)	1,704 (47.4%)	28 (60.9%)	1,708 (47.4%)	24 (68.6%)	1,732 (47.7%)	0 (0%)
여성	1,897 (52.7%)	12 (31.6%)	1,891 (52.6%)	18 (39.1%)	1,898 (52.6%)	11 (31.4%)	1,897 (52.3%)	12 (100.0%)
전체	3,603 (100.0%)	38 (100.0%)	3,595 (100.0%)	46 (100.0%)	3,606 (100.0%)	35 (100.0%)	3,629 (100.0%)	12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99는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남성이 60.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폭력 피해는 75.0% 여성이 높았으며, 성폭력시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 50.0%로 나타났다.

표 99.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남성	64 (52.5%)	3 (60.0%)	66 (53.7%)	1 (25.0%)	65 (52.8%)	2 (50.0%)	67 (54.9%)	0 (0.0%)
여성	58 (47.5%)	2 (40.0%)	57 (46.3%)	3 (75.0%)	58 (47.2%)	2 (50.0%)	55 (45.1%)	5 (100.0%)
전체	122 (100.0%)	5 (100.0%)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2 (100.0%)	5 (10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100은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중학교 42.1%, 인문계 고등학교 31.6%, 초등학교와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3.2%, 성폭력피해는 중학교 43.5%, 초등학교 28.3%, 인문계 고등학교 21.7%, 성폭력시도는 중학교 40.0%, 인문계 고등학교 31.4%, 초등학교 20.0%, 임신출산은 중학교 48.5%, 인문계 고등학교 33.3%, 초등학교와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9.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0.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초등학교	985 (27.3%)	5 (13.2%)	977 (27.2%)	13 (28.3%)	983 (27.2%)	7 (20.0%)	987 (27.3%)	3 (9.1%)
중학교	1,423 (39.5%)	16 (42.1%)	1,419 (39.4%)	20 (43.5%)	1,425 (39.5%)	14 (40.0%)	1,423 (39.4%)	16 (48.5%)
인문계 고등학교	887 (24.6%)	12 (31.6%)	889 (24.7%)	10 (21.7%)	888 (24.6%)	11 (31.4%)	888 (24.6%)	11 (33.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309 (8.6%)	5 (13.2%)	311 (8.6%)	3 (6.5%)	311 (8.6%)	3 (8.6%)	311 (8.6%)	3 (9.1%)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b>전체</b>	3,605 (100.0%)	38 (100.0%)	3,597 (100.0%)	46 (100.0%)	3,608 (100.0%)	35 (100.0%)	3,610 (100.0%)	33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01은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와 성폭력시도는 꿈드림센터에서만 나타났으며, 성폭력피해는 꿈드림센터 75.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25.0%, 임신출산은 꿈드림센터 85.7%,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14.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1.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검정고시 학원	5 (4.1%)	0 (0.0%)	5 (4.1%)	0 (0.0%)	5 (4.1%)	0 (0.0%)	5 (4.2%)	0 (0.0%)
직업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소년원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학교나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않음	46 (37.7%)	0 (0.0%)	45 (36.6%)	1 (25.0%)	46 (37.4%)	0 (0.0%)	45 (37.5%)	1 (14.3%)
꿈드림센터	69 (56.6%)	5 (100.0%)	71 (57.7%)	3 (75.0%)	70 (56.9%)	4 (100.0%)	68 (56.7%)	6 (85.7%)
<b>전체</b>	122 (100.0%)	5 (100.0%)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0 (100.0%)	7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102는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부분 모두에서 ‘보통’ 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는 ‘매우 어려운 편’ 10.5%, ‘잘 사는 편’ 7.9%, 성폭력피해는 ‘잘 사는 편’ 15.2%, 성폭력시도는 ‘매우 어려운 편’ , ‘잘 사는 편’ 8.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2.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34 (0.9%)	4 (10.5%)	34 (0.9%)	4 (8.7%)	35 (1.0%)	3 (8.6%)	36 (1.0%)	2 (6.1%)
어려운 편	257 (7.1%)	1 (2.6%)	254 (7.1%)	4 (8.7%)	256 (7.1%)	2 (5.7%)	256 (7.1%)	2 (6.1%)
보통	2,463 (68.4%)	29 (76.3%)	2,462 (68.5%)	30 (65.2%)	2,466 (68.4%)	26 (74.3%)	2,467 (68.4%)	25 (75.8%)
잘 사는 편	736 (20.4%)	3 (7.9%)	732 (20.4%)	7 (15.2%)	736 (20.4%)	3 (8.6%)	737 (20.4%)	2 (6.1%)
매우 잘사는 편	111 (3.1%)	1 (2.6%)	111 (3.1%)	1 (2.2%)	111 (3.1%)	1 (2.9%)	110 (3.1%)	2 (6.1%)
<b>전체</b>	3,601 (100.0%)	38 (100.0%)	3,593 (100.0%)	46 (100.0%)	3,604 (100.0%)	35 (100.0%)	3,606 (100.0%)	33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03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매우 어려운 편’ 60.0%, ‘어려운 편’ 20.0%, 성폭력 피해는 ‘매우 어려운 편’ 50.0%, ‘어려운 편’ 50.0%, 성폭력시도 ‘매우 어려운 편’ 50.0%, ‘어려운 편’ 25.0%, 임신출산 ‘매우 어려운 편’ 28.6%, ‘어려운 편’ 28.6%순으로 나타났다.

표 103.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매우 어려운 편	7 (5.7%)	3 (60.0%)	8 (6.5%)	2 (50.0%)	8 (6.5%)	2 (50.0%)	8 (6.7%)	2 (28.6%)
어려운 편	39 (32.0%)	1 (20.0%)	38 (30.9%)	2 (50.0%)	39 (31.7%)	1 (25.0%)	38 (31.7%)	2 (28.6%)
보통	67 (54.9%)	0 (0.0%)	67 (54.5%)	0 (0.0%)	67 (54.5%)	0 (0.0%)	65 (54.2%)	2 (28.6%)
잘 사는 편	9 (7.4%)	1 (20.0%)	10 (8.1%)	0 (0.0%)	9 (7.3%)	1 (25.0%)	9 (7.5%)	1 (14.3%)
<b>전체</b>	122 (100.0%)	5 (100.0%)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0 (100.0%)	7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8) 가출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104는 시군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문제 중 가출 경험은 보령시 27.3%,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18.2%, 가출팸경험은 보령시 57.9%, 천안시 15.8%, 아산시 10.5%, 현재가출상태는 보령시 33.3%, 천안시 26.7%, 아산시 20.0%순으로 나타났다.

표 104. 시군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천안시	951 (26.2%)	2 (18.2%)	950 (26.2%)	3 (15.8%)	942 (26.1%)	4 (26.7%)
공주시	143 (3.9%)	0 (0.0%)	143 (4.0%)	0 (0.0%)	143 (4.0%)	0 (0.0%)
보령시	409 (11.3%)	3 (27.3%)	401 (11.1%)	11 (57.9%)	402 (11.2%)	5 (33.3%)
아산시	307 (8.5%)	2 (18.2%)	307 (8.5%)	2 (10.5%)	305 (8.5%)	3 (20.0%)
서산시	470 (13.0%)	2 (18.2%)	471 (13.0%)	1 (5.3%)	469 (13.0%)	0 (0.0%)
논산시	161 (4.4%)	0 (0.0%)	160 (4.4%)	1 (5.3%)	160 (4.4%)	1 (6.7%)
계룡시	94 (2.6%)	0 (0.0%)	94 (2.6%)	0 (0.0%)	94 (2.6%)	0 (0.0%)
당진시	201 (5.5%)	0 (0.0%)	201 (5.6%)	0 (0.0%)	200 (5.5%)	1 (6.7%)
금산군	98 (2.7%)	0 (0.0%)	98 (2.7%)	0 (0.0%)	98 (2.7%)	0 (0.0%)
부여군	104 (2.9%)	0 (0.0%)	104 (2.9%)	0 (0.0%)	103 (2.9%)	1 (6.7%)
서천군	102 (2.8%)	1 (9.1%)	102 (2.8%)	1 (5.3%)	102 (2.8%)	0 (0.0%)
청양군	97 (2.7%)	0 (0.0%)	97 (2.7%)	0 (0.0%)	97 (2.7%)	0 (0.0%)
홍성군	100 (2.8%)	1 (9.1%)	101 (2.8%)	0 (0.0%)	100 (2.8%)	0 (0.0%)
예산군	104 (2.9%)	0 (0.0%)	104 (2.9%)	0 (0.0%)	102 (2.8%)	0 (0.0%)
태안군	287 (7.9%)	0 (0.0%)	287 (7.9%)	0 (0.0%)	287 (8.0%)	0 (0.0%)
<b>전체</b>	<b>3,628 (100.0%)</b>	<b>11 (100.0%)</b>	<b>3,620 (100.0%)</b>	<b>19 (100.0%)</b>	<b>3,604 (100.0%)</b>	<b>15 (100.0%)</b>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05는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문제 중 가출경험은 공주시, 서천군 50.0%, 현재가출상태는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33.3%로 나타났다. 가출팸경험은 서천군 50.0%, 아산시, 예산군 25.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5.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천안시	22 (17.7%)	0 (0.0%)	22 (18.0%)	0 (0.0%)	21 (17.1%)	1 (33.3%)
공주시	9 (7.3%)	1 (50.0%)	10 (8.2%)	0 (0.0%)	9 (7.3%)	1 (33.3%)
보령시	8 (6.5%)	0 (0.0%)	8 (6.6%)	0 (0.0%)	8 (6.5%)	0 (0.0%)
아산시	9 (7.3%)	0 (0.0%)	8 (6.6%)	1 (25.0%)	9 (7.3%)	0 (0.0%)
서산시	10 (8.1%)	0 (0.0%)	10 (8.2%)	0 (0.0%)	10 (8.1%)	0 (0.0%)
논산시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계룡시	17 (13.7%)	0 (0.0%)	17 (13.9%)	0 (0.0%)	16 (13.0%)	1 (33.3%)
당진시	9 (7.3%)	0 (0.0%)	9 (7.4%)	0 (0.0%)	9 (7.3%)	0 (0.0%)
금산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서천군	8 (6.5%)	1 (50.0%)	7 (5.7%)	2 (50.0%)	9 (7.3%)	0 (0.0%)
청양군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홍성군	9 (7.3%)	0 (0.0%)	9 (7.4%)	0 (0.0%)	9 (7.3%)	0 (0.0%)
예산군	5 (4.0%)	0 (0.0%)	4 (3.3%)	1 (25.0%)	5 (4.1%)	0 (0.0%)
태안군	15 (12.1%)	0 (0.0%)	15 (12.3%)	0 (0.0%)	15 (12.2%)	0 (0.0%)
<b>전체</b>	124 (100.0%)	2 (100.0%)	122 (100.0%)	4 (100.0%)	123 (100.0%)	3 (100.0%)

- I · 서론
- II · 이론적배경
- III · 연구방법
- IV · 연구결과
- V · 결론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106은 성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문제 중 가출경험과 가출팸경험은 남성이 90.9%와 57.9%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가출상태는 여성이 5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6. 성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남성	1,722 (47.4%)	10 (90.9%)	1,721 (47.5%)	11 (57.9%)	1,715 (47.6%)	7 (46.7%)
여성	1,908 (52.6%)	1 (9.1%)	1,901 (52.5%)	8 (42.1%)	1,891 (52.4%)	8 (53.3%)
전체	3,630 (100.0%)	11 (100.0%)	3,622 (100.0%)	19 (100.0%)	3,606 (100.0%)	15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07은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문제 중 가출경험과 가출팸경험은 남성에게서만 나타났으며, 현재가출상태는 남성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7.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남성	65 (52.0%)	2 (100.0%)	63 (51.2%)	4 (100.0%)	65 (52.4%)	2 (66.7%)
여성	60 (48.0%)	0 (0.0%)	60 (48.8%)	0 (0.0%)	59 (47.6%)	1 (33.3%)
전체	125 (100.0%)	2 (100.0%)	123 (100.0%)	4 (100.0%)	124 (100.0%)	3 (10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108은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문제 중 가출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교 45.5%, 중학교,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27.3%, 가출팸 경험은 중학교 47.4%, 인문계고등학교 31.6%, 현재가출 상태는 중학교 60.0%, 인문계 고등학교 20.0%,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3.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8.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초등학교	990 (27.3%)	0 (0.0%)	988 (27.3%)	2 (10.5%)	984 (27.3%)	1 (6.7%)
중학교	1,436 (39.5%)	3 (27.3%)	1,430 (39.5%)	9 (47.4%)	1,419 (39.3%)	9 (60.0%)
인문계 고등학교	894 (24.6%)	5 (45.5%)	893 (24.6%)	6 (31.6%)	893 (24.8%)	3 (20.0%)
전문계(실업계)고 등학교	311 (8.6%)	3 (27.3%)	312 (8.6%)	2 (10.5%)	311 (8.6%)	2 (13.3%)
대안학교	1 (0.0%)	0 (0.0%)	1 (0.0%)	0 (0.0%)	1 (0.0%)	0 (0.0%)
전체	3,632 (100.0%)	11 (100.0%)	3,624 (100.0%)	19 (100.0%)	3,608 (100.0%)	15 (10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09는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문제 중 가출경험은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꿈드림센터 50.0%로 나타났으며, 가출팸경험은 꿈드림센터 75.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25.0%, 현재가출 상태는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66.7%, 꿈드림센터 33.3%순으로 나타났다.

표 109.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검정고시 학원	5 (4.0%)	0 (0.0%)	5 (4.1%)	0 (0.0%)	5 (4.0%)	0 (0.0%)
직업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소년원학교	1 (0.8%)	0 (0.0%)	1 (0.8%)	0 (0.0%)	1 (0.8%)	0 (0.0%)
학교나검정고시학 원에 다니지않음	45 (36.0%)	1 (50.0%)	45 (36.6%)	1 (25.0%)	44 (35.5%)	2 (66.7%)
꿈드림센터	73 (58.4%)	1 (50.0%)	71 (57.7%)	3 (75.0%)	73 (58.9%)	1 (33.3%)
전체	125 (100.0%)	2 (100.0%)	123 (100.0%)	4 (100.0%)	124 (100.0%)	3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110은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모든 부분에서 ‘보통’ 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출경험은 ‘매우 잘 사는 편’ 18.2%, 가출팸 경험은 ‘매우 잘 사는 편’ 5.3%, 현재가출상태는 ‘잘 사는 편’ 20.0%, ‘매우 잘 사는 편’ 6.7%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이나 현재 가출 중에 있는 경우 잘 사는 편이나 매우 잘 사는 편이 어려운 편이나 매우 어려운 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0.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매우 어려운 편	38 (1.0%)	0 (0.0%)	37 (1.0%)	1 (5.3%)	37 (1.0%)	1 (6.7%)
어려운 편	257 (7.1%)	1 (9.1%)	258 (7.1%)	0 (0.0%)	255 (7.1%)	2 (13.3%)
보통	2,485 (68.5%)	7 (63.6%)	2,475 (68.4%)	17 (89.5%)	2,472 (68.6%)	8 (53.3%)
잘 사는 편	738 (20.3%)	1 (9.1%)	739 (20.4%)	0 (0.0%)	731 (20.3%)	3 (20.0%)
매우 잘 사는 편	110 (3.0%)	2 (18.2%)	111 (3.1%)	1 (5.3%)	109 (3.0%)	1 (6.7%)
전체	3,628 (100.0%)	11 (100.0%)	3,620 (100.0%)	19 (100.0%)	3,604 (100.0%)	15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11은 가정경제수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문제 중 가출경험은 ‘어려운 편’, ‘보통’ 50%, 가출팸 경험은 ‘매우 어려운 편’ 50.0%, ‘어려운 편’, ‘보통’ 25.0%, 현재가출상태는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각 33.3%로 나타났다.

표 111. 가정경제수준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매우 어려운 편	10	0	8	2	9	1
	(8.0%)	(0.0%)	(6.5%)	(50.0%)	(7.3%)	(33.3%)
어려운 편	39	1	39	1	39	1
	(31.2%)	(50.0%)	(31.7%)	(25.0%)	(31.5%)	(33.3%)
보통	66	1	66	1	67	0
	(52.8%)	(50.0%)	(53.7%)	(25.0%)	(54.0%)	(0.0%)
잘 사는 편	10	0	10	0	9	1
	(8.0%)	(0.0%)	(8.1%)	(0.0%)	(7.3%)	(33.3%)
전체	125	2	123	4	124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 학업중단유무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표 112는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 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천안시 31.8%, 보령시 27.3%, 당진시 13.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천안시	936 (26.1%)	7 (31.8%)	943 (26.1%)
공주시	143 (4.0%)	0 (0.0%)	143 (4.0%)
보령시	399 (11.1%)	6 (27.3%)	405 (11.2%)
아산시	305 (8.5%)	2 (9.1%)	307 (8.5%)
서산시	468 (13.0%)	1 (4.5%)	469 (13.0%)
논산시	159 (4.4%)	1 (4.5%)	160 (4.4%)
계룡시	94 (2.6%)	0 (0.0%)	94 (2.6%)
당진시	198 (5.5%)	3 (13.6%)	201 (5.6%)
금산군	98 (2.7%)	0 (0.0%)	98 (2.7%)
부여군	103 (2.9%)	1 (4.5%)	104 (2.9%)
서천군	101 (2.8%)	0 (0.0%)	101 (2.8%)
청양군	96 (2.7%)	1 (4.5%)	97 (2.7%)
홍성군	101 (2.8%)	0 (0.0%)	101 (2.8%)
예산군	102 (2.8%)	0 (0.0%)	102 (2.8%)
태안군	285 (7.9%)	0 (0.0%)	285 (7.9%)
<b>전체</b>	<b>3,588 (100.0%)</b>	<b>22 (100.0%)</b>	<b>3,610 (100.0%)</b>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13은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천안시 15.5%, 태안군 13.6%, 계룡시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3.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시군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천안시	6 (26.1%)	16 (15.5%)	22 (17.5%)
공주시	4 (17.4%)	6 (5.8%)	10 (7.9%)
보령시	4 (17.4%)	4 (3.9%)	8 (6.3%)
아산시	0 (0.0%)	9 (8.7%)	9 (7.1%)
서산시	1 (4.3%)	9 (8.7%)	10 (7.9%)
논산시	0 (0.0%)	1 (1.0%)	1 (0.8%)
계룡시	4 (17.4%)	13 (12.6%)	17 (13.5%)
당진시	0 (0.0%)	9 (8.7%)	9 (7.1%)
금산군	0 (0.0%)	1 (1.0%)	1 (0.8%)
서천군	0 (0.0%)	9 (8.7%)	9 (7.1%)
청양군	0 (0.0%)	1 (1.0%)	1 (0.8%)
홍성군	3 (13.0%)	6 (5.8%)	9 (7.1%)
예산군	0 (0.0%)	5 (4.9%)	5 (4.0%)
태안군	1 (4.3%)	14 (13.6%)	15 (11.9%)
<b>전체</b>	23 (100.0%)	103 (100.0%)	126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표 114는 성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 63.6%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4. 성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남성	1,704 (47.5%)	14 (63.6%)	1,718 (47.6%)
여성	1,886 (52.5%)	8 (36.4%)	1,894 (52.4%)
전체	3,590 (100.0%)	22 (100.0%)	3,612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15는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 52.4%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5.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성별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남성	13 (54.2%)	54 (52.4%)	67 (52.8%)
여성	11 (45.8%)	49 (47.6%)	60 (47.2%)
전체	24 (100.0%)	103 (100.0%)	127 (10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표 116은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54.5%, 인문계 고등학교 27.3%, 초등학교 13.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6.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초등학교	978 (27.2%)	3 (13.6%)	981 (27.1%)
중학교	1,415 (39.4%)	12 (54.5%)	1,427 (39.5%)
인문계 고등학교	889 (24.7%)	6 (27.3%)	895 (24.8%)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309 (8.6%)	1 (4.5%)	310 (8.6%)
대안학교	1 (0.0%)	0 (0.0%)	1 (0.0%)
<b>전체</b>	<b>3,592</b> <b>(100.0%)</b>	<b>22</b> <b>(100.0%)</b>	<b>3,614</b> <b>(100.0%)</b>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17은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꿈드림센터 57.3%,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39.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7.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검정고시 학원	2 (8.3%)	3 (2.9%)	5 (3.9%)
직업학교	1 (4.2%)	0 (0.0%)	1 (0.8%)
소년원학교	1 (4.2%)	0 (0.0%)	1 (0.8%)
학교나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않음	5 (20.8%)	41 (39.8%)	46 (36.2%)
꿈드림센터	15 (62.5%)	59 (57.3%)	74 (58.3%)
<b>전체</b>	24 (100.0%)	103 (100.0%)	127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표 118은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보통' 68.2%, '잘 사는 편' 13.6%, '어려운 편' 9.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8.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매우 어려운 편	37 (1.0%)	1 (4.5%)	38 (1.1%)
어려운 편	254 (7.1%)	2 (9.1%)	256 (7.1%)
보통	2,459 (68.5%)	15 (68.2%)	2,474 (68.5%)
잘 사는 편	729 (20.3%)	3 (13.6%)	732 (20.3%)
매우 잘사는 편	109 (3.0%)	1 (4.5%)	110 (3.0%)
<b>전체</b>	<b>3,588 (100.0%)</b>	<b>22 (100.0%)</b>	<b>3,610 (100.0%)</b>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19는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중단 여부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보통’ 52.4%, ‘어려운 편’ 30.1%, ‘매우 어려운 편’ 9.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9.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유무 위기결과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매우 어려운 편	0 (0.0%)	10 (9.7%)	10 (7.9%)
어려운 편	9 (37.5%)	31 (30.1%)	40 (31.5%)
보통	13 (54.2%)	54 (52.4%)	67 (52.8%)
잘 사는 편	2 (8.3%)	8 (7.8%)	10 (7.9%)
<b>전체</b>	24 (100.0%)	103 (100.0%)	127 (100.0%)

#### 4.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 가. 인터넷·스마트폰중독

##### 1) 일반학생

표 120은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 중 과다사용은 일반군 74.1%, 잠재적 위험군 22.2%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장애는 일반군 65.2%, 잠재적 위험군 27.3%, 금단은 일반군 57.6%, 잠재적 위험군 36.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부분 모두 일반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0.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51 (1.7%)	22 (3.7%)	52 (1.6%)	21 (7.4%)	65 (1.9%)	8 (6.4%)
잠재적위험군	356 (11.7%)	131 (22.2%)	410 (12.2%)	77 (27.3%)	442 (12.6%)	45 (36.0%)
일반군	2,632 (86.6%)	437 (74.1%)	2,885 (86.2%)	184 (65.2%)	2,997 (85.5%)	72 (57.6%)
전체	3,039 (100.0%)	590 (100.0%)	3,347 (100.0%)	282 (100.0%)	3,504 (100.0%)	125 (100.0%)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21은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 중 과다사용은 일반군 53.3%, 잠재적 위험군 30.0%로 나타났으나, 일상생활장애는 잠재적위험군 35.7%, 일반군 35.7%, 금단은 잠재적위험군 53.8%, 일반군 23.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다사용은 일반군이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일상생활장애와 금단에서 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1.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18 (18.6%)	5 (16.7%)	17 (17.2%)	6 (21.4%)	20 (17.5%)	3 (23.1%)
잠재적위험군	26 (26.8%)	9 (30.0%)	23 (23.2%)	12 (42.9%)	28 (24.6%)	7 (53.8%)
일반군	53 (54.6%)	16 (53.3%)	59 (59.6%)	10 (35.7%)	66 (57.9%)	3 (23.1%)
전체	97 (100.0%)	30 (100.0%)	99 (100.0%)	28 (100.0%)	114 (100.0%)	13 (100.0%)

나. 약물

1) 일반학생

표 122는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 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잠재적 위험군 4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54.7%,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이라고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7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67 (1.9%)	6 (35.3%)	60 (1.7%)	13 (13.7%)	65 (1.8%)	8 (72.7%)
잠재적위험군	479 (13.3%)	8 (47.1%)	457 (12.9%)	30 (31.6%)	487 (13.5%)	0 (0.0%)
일반군	3,066 (84.9%)	3 (17.6%)	3,017 (85.4%)	52 (54.7%)	3,066 (84.7%)	3 (27.3%)
전체	3,612 (100.0%)	17 (100.0%)	3,534 (100.0%)	95 (100.0%)	3,618 (100.0%)	11 (100.0%)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23은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술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3개 수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담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3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 이라고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에서만 나타났다.

표 123.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21 (17.4%)	2 (33.3%)	16 (16.2%)	7 (25.0%)	21 (16.8%)	2 (100.0%)
잠재적위험군	33 (27.3%)	2 (33.3%)	25 (25.3%)	10 (35.7%)	35 (28.0%)	0 (0.0%)
일반군	67 (55.4%)	2 (33.3%)	58 (58.6%)	11 (39.3%)	69 (55.2%)	0 (0.0%)
전체	121 (100.0%)	6 (100.0%)	99 (100.0%)	28 (100.0%)	125 (100.0%)	2 (100.0%)

다. 학교폭력피해

1) 일반학생

표 124는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신체 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6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언어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7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따돌림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4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돈·물건 빼앗김을 ‘주 1~2회 이상’ 당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4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이버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과 고위험군이 42.9%와 38.1%로 나타났다.

표 124. 일반학생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68 (1.9%)	5 (27.8%)	69 (1.9%)	4 (11.4%)	65 (1.8%)	8 (29.6%)	67 (1.9%)	6 (42.9%)	65 (1.8%)	8 (38.1%)
잠재적위험군	485 (13.4%)	2 (11.1%)	481 (13.4%)	6 (17.1%)	480 (13.3%)	7 (25.9%)	483 (13.4%)	4 (28.6%)	483 (13.4%)	4 (19.0%)
일반군	3,058 (84.7%)	11 (61.1%)	3,044 (84.7%)	25 (71.4%)	3,057 (84.9%)	12 (44.4%)	3,065 (84.8%)	4 (28.6%)	3,060 (84.8%)	9 (42.9%)
전체	3,611 (100.0%)	18 (100.0%)	3,594 (100.0%)	35 (100.0%)	3,602 (100.0%)	27 (100.0%)	3,615 (100.0%)	14 (100.0%)	3,608 (100.0%)	21 (100.0%)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25는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신체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5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따돌림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과 고위험군이 각각 50.0% 비율로 나타났으며, 돈 · 물건 빼앗김을 ‘주 1~2회 이상’ 당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5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이버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에서만 나타났다. 언어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75.0%로 비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25. 취약 ·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 물건 빼앗김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21 (17.1%)	2 (50.0%)	22 (17.9%)	1 (25.0%)	22 (17.6%)	1 (50.0%)	21 (17.1%)	2 (50.0%)	22 (17.5%)	1 (100.0%)
잠재적위험군	34 (27.6%)	1 (25.0%)	35 (28.5%)	0 (0.0%)	35 (28.0%)	0 (0.0%)	34 (27.6%)	1 (25.0%)	35 (27.8%)	0 (0.0%)
일반군	68 (55.3%)	1 (25.0%)	66 (53.7%)	3 (75.0%)	68 (54.4%)	1 (50.0%)	68 (55.3%)	1 (25.0%)	69 (54.8%)	0 (0.0%)
전체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5 (100.0%)	2 (100.0%)	123 (100.0%)	4 (100.0%)	126 (100.0%)	1 (100.0%)

라. 학교폭력가해

1) 일반학생

표 126은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신체폭력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4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따돌림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7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돈·물건 빼앗음을 ‘주 1~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이버폭력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60.0%로 높게 나타났으나 언어폭력을 ‘거의 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6. 일반학생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65 (1.8%)	8 (47.1%)	65 (1.8%)	8 (30.8%)	66 (1.8%)	7 (70.0%)	65 (1.8%)	8 (66.7%)	70 (1.9%)	3 (60.0%)
잠재적위험군	483 (13.4%)	4 (23.5%)	483 (13.4%)	4 (15.4%)	485 (13.4%)	2 (20.0%)	485 (13.4%)	2 (16.7%)	487 (13.4%)	0 (0.0%)
일반군	3,064 (84.8%)	5 (29.4%)	3,055 (84.8%)	14 (53.8%)	3,068 (84.8%)	1 (10.0%)	3,067 (84.8%)	2 (16.7%)	3,067 (84.6%)	2 (40.0%)
전체	3,612 (100.0%)	17 (100.0%)	3,603 (100.0%)	26 (100.0%)	3,619 (100.0%)	10 (100.0%)	3,617 (100.0%)	12 (100.0%)	3,624 (100.0%)	5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27은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신체폭력과 따돌림을 ‘거의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과 돈·물건 빼앗음을 ‘주 1~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에서만 나타났으나 언어폭력을 ‘거의매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27.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20 (16.1%)	3 (100.0%)	22 (17.7%)	1 (33.3%)	22 (17.5%)	1 (100.0%)	21 (16.8%)	2 (100.0%)	23 (18.1%)	0 (0.0%)
잠재적위험군	35 (28.2%)	0 (0.0%)	35 (28.2%)	0 (0.0%)	35 (27.8%)	0 (0.0%)	35 (28.0%)	0 (0.0%)	35 (27.6%)	0 (0.0%)
일반군	69 (55.6%)	0 (0.0%)	67 (54.0%)	2 (66.7%)	69 (54.8%)	0 (0.0%)	69 (55.2%)	0 (0.0%)	69 (54.3%)	0 (0.0%)
전체	124 (100.0%)	3 (100.0%)	124 (100.0%)	3 (100.0%)	126 (100.0%)	1 (100.0%)	125 (100.0%)	2 (100.0%)	127 (100.0%)	0 (0.0%)

I · 서론

II · 이론적배경

III · 연구방법

IV · 연구결과

V · 결론

마. 비행

1) 일반학생

표 128은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갈취를 ‘주 1~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6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절도를 ‘주 1~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6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28.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위기수준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67 (1.9%)	6 (60.0%)	64 (1.8%)	9 (69.2%)
잠재적위험군	486 (13.4%)	1 (10.0%)	485 (13.4%)	2 (15.4%)
일반군	3,066 (84.7%)	3 (30.0%)	3,067 (84.8%)	2 (15.4%)
전체	3,619 (100.0%)	10 (100.0%)	3,616 (100.0%)	13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29는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갈취를 ‘주 1~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에서만 나타났다.

표 129.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위기수준	갈취		절도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22 (17.5%)	1 (100.0%)	23 (18.1%)	0 (0.0%)
잠재적위험군	35 (27.8%)	0 (0.0%)	35 (27.6%)	0 (0.0%)
일반군	69 (54.8%)	0 (0.0%)	69 (54.3%)	0 (0.0%)
전체	126 (100.0%)	1 (100.0%)	127 (100.0%)	0 (0.0%)

마. 자살

1) 일반학생

표 130은 일반학생의 자살 관련 경험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자살계획을 ‘주 1~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4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살시도를 ‘주 2~3번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에서 30.6%와 36.1%, 33.3%비율로 3개 수준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130. 일반학생의 자살 관련 경험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62 (1.7%)	11 (22.4%)	51 (1.4%)	22 (30.6%)
잠재적위험군	473 (13.2%)	14 (28.6%)	461 (13.0%)	26 (36.1%)
일반군	3,045 (85.1%)	24 (49.0%)	3,045 (85.6%)	24 (33.3%)
전체	3,580 (100.0%)	49 (100.0%)	3,557 (100.0%)	7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31은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관련 경험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자살계획을 ‘주 1~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6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자살시도를 ‘주 2~3번 이상’ 한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잠재적 위험군 5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31.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관련 경험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20 (16.4%)	3 (60.0%)	21 (17.8%)	2 (22.2%)
잠재적위험군	35 (28.7%)	0 (0.0%)	30 (25.4%)	5 (55.6%)
일반군	67 (54.9%)	2 (40.0%)	67 (56.8%)	2 (22.2%)
전체	122 (100.0%)	5 (100.0%)	118 (100.0%)	9 (100.0%)

사. 성문제

1) 일반학생

표 132는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성매매를 ‘1번 이상’ 했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4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폭력피해를 ‘1번 이상’ 당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과 고위험군이 41.3%와 37.0% 비율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시도를 ‘1번 이상’ 했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4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임신출산을 ‘1번 이상’ 했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4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32.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위기수준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55 (1.5%)	18 (47.4%)	56 (1.6%)	17 (37.0%)	56 (1.6%)	17 (48.6%)	57 (1.6%)	16 (48.5%)
잠재적위험군	478 (13.3%)	9 (23.7%)	477 (13.3%)	10 (21.7%)	477 (13.3%)	10 (28.6%)	478 (13.3%)	9 (27.3%)
일반군	3,058 (85.2%)	11 (28.9%)	3,050 (85.1%)	19 (41.3%)	3,061 (85.2%)	8 (22.9%)	3,061 (85.1%)	8 (24.2%)
전체	3,591 (100.0%)	38 (100.0%)	3,583 (100.0%)	46 (100.0%)	3,594 (100.0%)	35 (100.0%)	3,596 (100.0%)	33 (100.0%)

##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33은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성매매를 ‘1번 이상’ 했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과 고위험군이 각각 40.0%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를 ‘1번 이상’ 당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과 고위험군이 50.0%와 50.0% 비율로 나타났으며, 임신출산을 ‘1번 이상’ 했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과 고위험군이 각각 42.9%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성폭력시도를 ‘1번 이상’ 했다는 것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 5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33.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성매매		성폭력피해		성폭력시도		임신출산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고위험군	21 (17.2%)	2 (40.0%)	21 (17.1%)	2 (50.0%)	21 (17.1%)	2 (50.0%)	20 (16.7%)	3 (42.9%)
잠재적위험군	34 (27.9%)	1 (20.0%)	35 (28.5%)	0 (0.0%)	34 (27.6%)	1 (25.0%)	34 (28.3%)	1 (14.3%)
일반군	67 (54.9%)	2 (40.0%)	67 (54.5%)	2 (50.0%)	68 (55.3%)	1 (25.0%)	66 (55.0%)	3 (42.9%)
전체	122 (100.0%)	5 (100.0%)	123 (100.0%)	4 (100.0%)	123 (100.0%)	4 (100.0%)	120 (100.0%)	7 (100.0%)

아. 가출

1) 일반학생

표 134는 일반학생의 가출 경험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가출경험을 ‘주 1~2회 이상’ 으로 답한 청소년과 가출팸경험을 ‘2~3번 이상’ 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각각 54.5%, 7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현재 가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일반군(4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4. 일반학생의 가출 경험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고위험군	67 (1.9%)	6 (54.5%)	59 (1.6%)	14 (73.7%)	67 (1.9%)	6 (40.0%)
잠재적위험군	484 (13.4%)	3 (27.3%)	484 (13.4%)	3 (15.8%)	482 (13.4%)	2 (13.3%)
일반군	3,067 (84.8%)	2 (18.2%)	3,067 (85.0%)	2 (10.5%)	3,045 (84.7%)	7 (46.7%)
전체	3,618 (100.0%)	11 (100.0%)	3,610 (100.0%)	19 (100.0%)	3,594 (100.0%)	15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35는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경험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가출경험을 ‘주 1~2회 이상’ 으로 답한 청소년과 가출팸경험을 ‘2~3번 이상’ 으로 답한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각각 54.5%, 7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현재 가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일반군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5.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경험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가출경험		가출팸경험		현재가출상태	
	무	유	무	유	아니다	그렇다
고위험군	22 (17.6%)	1 (50.0%)	20 (16.3%)	3 (75.0%)	22 (17.7%)	1 (33.3%)
잠재적위험군	34 (27.2%)	1 (50.0%)	35 (28.5%)	0 (0.0%)	34 (27.4%)	1 (33.3%)
일반군	69 (55.2%)	0 (0.0%)	68 (55.3%)	1 (25.0%)	68 (54.8%)	1 (33.3%)
전체	125 (100.0%)	2 (100.0%)	123 (100.0%)	4 (100.0%)	124 (100.0%)	3 (100.0%)

자. 학업중단

1) 일반학생

표 136은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6.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고위험군	65 (1.8%)	8 (36.4%)	73 (2.0%)
잠재적위험군	479 (13.4%)	5 (22.7%)	484 (13.4%)
일반군	3,034 (84.8%)	9 (40.9%)	3,043 (84.5%)
전체	3,578 (100.0%)	22 (100.0%)	3,60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표 137은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답한 청소년은 일반군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7.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현재 학업중단 여부		전체
	아니다	그렇다	
고위험군	5 (20.8%)	18 (17.5%)	23 (18.1%)
잠재적위험군	6 (25.0%)	29 (28.2%)	35 (27.6%)
일반군	13 (54.2%)	56 (54.4%)	69 (54.3%)
전체	24 (100.0%)	103 (100.0%)	127 (100.0%)

## 5. 보호요인

### 가. 보호요인 차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8은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간 보호요인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대상에 따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보호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래 보호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 보호요인의 일반학생 평균 6.46, 취약·위기청소년의 평균 5.31으로 취약·위기청소년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38. 대상별 보호요인 차이

구분	대상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	일반학생	3,612	14.32	4.13	.155
	취약·위기청소년	127	11.97	3.71	
가정	일반학생	3,615	12.43	3.50	.841
	취약·위기청소년	127	9.84	3.50	
또래	일반학생	3,625	6.46	1.93	.041*
	취약·위기청소년	127	5.31	2.22	
학교	일반학생	3,619	5.54	2.16	.148
	취약·위기청소년	127	4.37	2.05	
지역사회	일반학생	3,624	4.93	2.52	.444
	취약·위기청소년	127	3.83	2.50	



## 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는 표 .와 같다. 일반학생의 경우 일반군 집단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보호요인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요인 세부영역 중 또래, 학교, 지역사회 보호요인에서 위기수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9. 일반학생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보호요인	위기수준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 보호요인	고위험군	72	10.14	4.79	.292
	잠재적 위험군	484	11.55	3.77	
	일반군	3,042	14.86	3.93	
	합계	3,598	14.32	4.13	
가정 보호요인	고위험군	72	8.06	3.87	.668
	잠재적 위험군	484	9.55	3.18	
	일반군	3,046	13.00	3.24	
	합계	3,602	12.44	3.51	
또래 보호요인	고위험군	72	4.85	2.34	.000***
	잠재적 위험군	484	5.32	2.01	
	일반군	3,055	6.67	1.82	
	합계	3,611	6.46	1.93	
학교 보호요인	고위험군	72	4.08	2.65	.001*
	잠재적 위험군	483	4.40	2.01	
	일반군	3,051	5.75	2.09	
	합계	3,606	5.54	2.15	
지역사회 보호요인	고위험군	72	3.43	2.62	.000***
	잠재적 위험군	484	3.61	2.23	
	일반군	3,054	5.18	2.48	
	합계	3,610	4.93	2.52	

\*p&lt;0.05, \*\*p&lt;0.01, \*\*\*p&lt;0.001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는 표 140과 같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일반군 집단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보호요인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요인 세부영역 중 개인, 가정 보호요인에서 위기수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0.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보호요인	위기수준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 보호요인	고위험군	23	10.13	2.28	.033*
	잠재적 위험군	35	11.11	3.06	
	일반군	69	13.01	4.06	
	합계	127	11.97	3.71	
가정 보호요인	고위험군	23	7.83	2.67	.033*
	잠재적 위험군	35	9.34	2.50	
	일반군	69	10.77	3.86	
	합계	127	9.84	3.50	
또래 보호요인	고위험군	23	5.04	2.06	.517
	잠재적 위험군	35	5.23	1.97	
	일반군	69	5.43	2.40	
	합계	127	5.31	2.27	
학교 보호요인	고위험군	23	3.26	1.79	.275
	잠재적 위험군	35	4.51	1.88	
	일반군	69	4.67	2.12	
	합계	127	4.37	2.05	
지역사회 보호요인	고위험군	23	2.52	2.11	.526
	잠재적 위험군	35	4.11	2.29	
	일반군	69	4.13	2.62	
	합계	127	3.83	2.50	

\*p<0.05, \*\*p<0.01, \*\*\*p<0.001

## V. 결 론



## V.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위기수준과 위기 결과 등 전반적인 위기 실태 파악을 통해 위기청소년 문제 예방과 정책 방향 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총 3,642명의 일반학생과 127명의 취약·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를 위험요인별 위기수준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일반군의 3집단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1) 15개 시·군 지역별, (2) 성별, (3) 소속기관별, (4) 거주형태별, (5) 부모출신국별, (6) 가정경제수준별, (7)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8)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위험요인 및 위기수준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위기결과와 그에 따른 위기수준 분포를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2) 약물, (3) 학교폭력 피해·가해, (4) 비행, (5) 자살, (6) 성문제, (7) 가출, (8) 학업중단 영역으로 분석하였으며,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점수 차이에 대해 (1) 개인 보호요인, (2) 가정 보호요인, (3) 또래 보호요인, (4) 학교 보호요인, (5) 지역사회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에 따른 일반적 특성 분포 중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청소년 중 일반학생은 남성 47.6%, 여성 52.4%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남성 52.8%, 여성 47.2%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해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학생 8.1%에 비해 취약·위기청소년은 39.4%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반면 ‘매우 잘사는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학생에서만 3.1%로 나타났다.

청소년전화 1388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학생 48.2%, 취약·위기청소년 70.1%로 높은 인지를 나타냈으며, 청소년전화 1388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학생 3.6%, 취약·위기청소년 22.8%로 나타나 일반학생에 비해 취약·위기청소년이 청소년전화 1388의 인지 및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학생 58.8%, 취약·위기청소년 91.3%로 일반학생의 절반 이상되는 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었고, 취약·위기청소년의 대부분이 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학생 7.3%, 취약·위기청소년 67.5%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0) 기준으로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및 일반군 3개 위기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기수준 구분 기준은 위험요인 총점을 서열화하여 일반학생의 경우 고위험군 2.0%, 잠재적위험군 13.4%, 일반군 84.6%, 취약·위기청소년은 고위험군 17.6%, 잠재적위험군 22.3%, 일반군 55.1%를 적용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 중 고위험군 73명, 잠재적위험군 487명, 일반군 3,069명이 해당되었고 취약·위기청소년 중 고위험군 23명, 잠재적위험군 35명, 일반군 69명이 해당되었다.

15개 시·군 지역의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수준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의 경우, 일반 학생은 천안이 24.7%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그 외에 보령 23.3%, 아산 15.1%, 서산 12.3%, 태안 9.6%였으며, 공주,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의 경우 1.4%~4.1%의 고위험 수준이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은 천안이 26.1%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그 외에 보령, 아산 13.0%, 서산, 계룡, 서천, 태안이 8.7%의 고위험 수준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위기수준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의 경우, 일반학생은 남성 56.2%, 여성 43.8%로 남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취약·위기청소년은 남성 47.8%, 여성 52.2%로 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학생의 경우 중학교의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아 42.5%로 나타났고, 인문계 고등학교 34.2%,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3.7% 순으로 고위험군 비율이 나타나 중학교 재학생의 위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위기수준은 일반학생의 경우 고위험군 중 21.9%가 ‘매우 어려운편’ 이나 ‘어려운편’ 에 속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군에 속한 청소년 중 ‘매우 어려운편’ 이나 ‘어려운편’ 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중 60.8%, 일반군에 속한 청소년 중 30.4% 매우 어려운편’ 이나 ‘어려운편’ 에 속한다고 응답한 하였다. 이는 가정경제수준이 이들 청소년의 위기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위기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사대상에 따른 위기결과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반청소년과 취약·위기 청소년의 위기결과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성문제’ 를 제외한 그 외의 위기결과는 모두 일반청소년과 취약·위기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평균이 일반학생 0.77, 취약·위기청소년 1.18으로 다른 위기결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충청남도 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 비교적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에 따른 영역별 위기결과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경우 과다사용은 일반학생 16.3%, 취약·위기청소년 23.6%, 일상생활장애는 일반학생 7.8%, 취약·위기청소년 22.0%, 금단은 일반학생 3.5%, 일반학생 10.2%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약물 중독 문제의 경우 음주는 일반학생 0.5%, 취약·위기청소년 4.7%, 담배는 일반학생 2.6%, 취약·위기청소년 22.0%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가스나 마약의 경우 그렇지 않다. (3) 학교폭력은 피해와 가해 경험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신체폭력은 일반학생 0.5%, 취약·위기청소년 3.1%, 언어폭력 일반학생 1.0%, 취약·위기청소년 3.1%, 돈이나 물건 빼앗김 일반학생 0.4%, 취약·위기청소년 3.1%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신체폭력만 일반학생 0.5%, 취약·위기청소년 2.4%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 언어폭력, 따돌림, 돈이나 물건 빼앗음,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비행의 경우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자살의 경우 자살계획은 일반학생 1.3%, 취약·위기청소년 3.9%, 자살시도는 일반학생 2.0%, 취약·위기청소년 7.1%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6) 성문제의 경우 성매매는 일반학생 1.0%, 취약·위기청소년 3.9%, 성폭력시도 일반학생 1.3%, 취약·위기청소년 3.1%, 원치 않는 임신·출산 일반학생 0.9%, 취약·위기청소년 5.5%로 성폭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7) 가출문제와 관련하여 가출팸 경험은 일반학생 0.5%, 취약·위기청소년 3.1%, 현재 가출 중 일반학생 0.4%, 취약·위기청소년 2.4%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출 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15개 시·군 지역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과다사용의 경우 일반학생은 천안 25.7%, 서산 14.5%, 보령 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은 홍성 17.2%, 천안, 서천 13.8% 보령, 태안 1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장애의 경우 일반학생은 천안 25.8%, 서산 12.0%, 아산 10.6%, 취약·위기청소년은 서천 21.4%, 천안, 홍성 14.3%, 보령, 아산 10.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금단의 경우 일반학생은 천안 27.8%, 아산 12.7%, 서산 11.1%, 취약·위기청소년은 보령 30.8%, 천안, 아산, 태안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각각 지역차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반학생의 경우 여성이 과다사용 62.3%, 일상생활장애 61.5%, 금단 76.2%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별 차이는 중학교가 과다사용 46.9%, 일상생활장애 38.5%, 금단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물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학생 중 술과 담배를 거의 매일 하는 청소년은 남성이 술 58.8%, 담배 81.1%로, 가스나 마약을 주1~2회 이상 하는 청소년은 남성이 81.8% 각각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별 차이는 술 58.8%, 담배 62.1%로 인문계고등학교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스나 마약의 경우 중학교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의 지역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반학생의 경우 신체폭력은 보령, 태안 16.7%, 언어폭력은 천안 25.7%, 따돌림 천안 22.2%, 돈·물건 빼앗김 보령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신체폭력 아산 50.0%, 언어폭력 보령, 서산, 당진, 태안 25.0%, 따돌림 보령, 서산 50.0%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신체폭력 72.2%, 언어폭력 62.9%, 돈·물건 빼앗김 78.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따돌림의 경우 여성이 63.0%로 더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의 경우 대부분 중학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사이버 폭력이 인문계고등학교 60.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대부분 중학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비행 문제 중 일반학생은 갈취는 보령 40.0%, 절도는 천안, 보령, 아산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갈취 90.0%, 절도 76.6%로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갈취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4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절도의 경우 중학교에서 38.5%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 관련 문제에서는 일반학생 중 여성이 자살계획 71.4%, 자살시도 69.4%로 남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소속기관에 따라 자살계획은 중학교 36.7%, 인문계 고등학교 3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도 26.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52.8%가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학생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보령이 성매매 48.6%, 성폭력 피해 46.7%, 성폭력시도 50.0%, 임신·출산 53.1%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성매매 68.4%, 성폭력피해 60.9%, 성폭력시도 68.6%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따라서 중학교에서 대부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는 중학교 43.5%, 초등학교 28.3%로 저연령에서 성폭력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가출 경험의 지역별 차이에서도 일반학생의 경우 보령이 가출경험 27.3%, 가출팸 경험 57.9%,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 33.3%로 가장 높은 위기 결과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가출경험 90.9%, 가출팸경험 5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기관별 차이는 가출경험의 45.5%가 인문계고등학교, 가출팸경험의 47.4% 중학교였으며 현재가출중인 경우는 60.0%가 중학교로 나타났다.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수준은 일반학생의 경우 일반군이 과다사용 74.1%, 일상생활 장애 65.2%, 금단 5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은 과다사용은 일반군이 53.3%, 일상생활장애와 금단은 잠재적위험군이 각각 42.9%와 53.8%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에 있어 가스나 마약을 주 1~2회 이상하는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72.7%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음주를 매일 하는 청소년도 고위험군 35.0%, 잠재적 위험군 47.1%로 비교적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반면 흡연을 매일하는 청소년은 일반군이 54.7%로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군 청소년들이 다른 약물에 비해 흡연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일반군에서 많이 나타났다. 위기 결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폭력(61.1%), 언어폭력(71.4%), 따돌림(44.4%), 사이버폭력(42.9%)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일반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돈·물건 빼앗김의 경우는 고위험군에서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대부분 고위험군에서 많이 나타났다. 위기결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폭력(47.1%), 따돌림(70.0%), 돈·물건 빼앗김(66.7%), 사이버폭력(60.0%) 가해 경험은 고위험군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일반군에서 5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의 피해의 대상은 주로 일반군 청소년들이며,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위영역 중 언어폭력의 경우 일반군이 피해 71.4%, 가해 53.8%로 모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돈·물건 빼앗김(음)의 경우 고위험군이 피해 42.9% 가해 66.7%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관련 경험에 있어서 자살 계획을 해본 청소년은, 일반학생의 경우 일반군이 49.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이 60.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실제 자살 시도를 해본 청소년은 일반학생의 경우 3개 수준에서 30.6%~36.1% 사이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살 시도의 경우 다른 위기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개인의 위기수준으로 자살 위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 성매매(47.4%), 성폭력시도(48.6%), 임신·출산(48.5%)을 1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약 50%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일반군이 4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에 따른 보호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학생이 취약·위기청소년에 비해 또래 보호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또래의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으로 부터의 긍정적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에서는, 일반학생의 경우 또래·학교·지역사회 보호요인에서 일반군에 속한 청소년이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의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개인, 가정 보호요인에서 일반군이 다른 두 위험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대상에 따른 보호요인의 차이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특히, 취약 위기청소년의 경우 개인 영역의 긍정적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향상과 가정의 긍정적 영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 2. 연구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태조사이다.** 본 연구는 연구과제 선정 후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연구 TF팀을 모집하였고, 천안, 보령, 서산, 계룡, 태안의 5개 시·군센터가 TF팀으로 참여하여 4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설계 및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별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15개 시·군센터 실무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 배포하였고 총 3,781부를 회수하였다. 이에 충청남도 청소년의 실태과약을 위해 도내 16개 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업하여 대규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을 모두 포함한 다각도 조사이다.** 위기 청소년은 하나의 위기가 아닌 다각적이고 다양하며 중복적인 위기상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 전체를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의 개인 심리·정서와 사회 환경적 요인을 다각도로 아우르며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위기청소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위기 실태에 대한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모색 및 잠재적위험군과 일반군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제언들을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효성있는 서비스로 환류시키기 위한 풍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넷째, 청소년전화 1388 홍보 효과 극대화이다.** 2010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전화 1388의 인지도는 26.0%, 이용율은 1.8%로 매우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하였고 그 결과 2015년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의 청소년전화1388 인지도는 48.2%, 이용율은 3.6%로 두 배수 증가하였으며, 취약 위기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전화1388 인지도 70.1%, 이용율 22.8%로 일반학생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전화1388 홍보에 대한 성공적 결실로 보여지며 특히 취약 위기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하는 전략적 홍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별 일관성이 없는 표집이다.** 연구대상 표집에 있어 지역별 청소년 인구를 비율 적용한 표집 계획과 달리 보령, 서산, 태안의 3개 지역이 해당 지역 연구를 위해 표본 보다 더 많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적용 비율과 상이한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표본의 수도 계획보다 증가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한 다른 표집 기준 적용이다.** 일반 학생은 지역 청소년 인구수에 따라 각 지역별 비율 적용하였으나,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각 지역별 인구수와 상관없이 10명으로 임의 배정하여 조사대상에 따라 서로 상이한 표집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일반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그리고 취약·위기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소속된 청소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위기수준이 다소 낮게 나왔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조사대상의 범위가 쉼터, 그룹홈, 양육시설, 보호관찰, 소년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어야겠다.

### 3. 논의 및 제언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가정 경제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강화

위기수준 및 위기결과 발현에 있어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을 ‘매우 어려운편’ 과 ‘어려운편’에 속하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위기결과 발현율과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경제수준은 청소년 위기 개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사된다. 즉 현재 뚜렷한 위기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가정경제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정부차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위기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이는 환경의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및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의 역할과 기여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역 내 복지대상자 수요조사시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위기 스크리닝 실시를 제도화하고, 예방차원의 개입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둘째, 중학생 대상 집중적·필수적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위기수준별, 위기유형 결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위기결과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폭력 가·피해, 비행, 자살, 성, 가출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위기결과 ‘있음’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분포 결과 역시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중 42.5%가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위기결과 발현율과 높은 고위험 수준을 고려할 때 중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이고 필수적인 개입이 요구 된다.

이에 중등 학령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과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청·학교 간의 원활한 협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예방 차원의 교육이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 개인과 부모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개입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 셋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위기 수준별 개입 방법 모색

인터넷·스마트폰의 중독 문제는 그 특성상 단기적인 요인의 결과가 아니며 개입에 있어서도 중독과 습관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이로 인해 파생되는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은둔형 등의 문제도 심각하여 전반적 위기에방을 위한 선제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다른 위기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 비행, 성, 가출 등 대부분 위기결과는 고위험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일반군이 높은 위기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안내 없이 무분별한 매체 사용 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위기결과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0년 조사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의 위험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5년 조사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기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위기실태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며,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과 맞춤형 개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남학생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11박 12일 인터넷치유캠프 대상자가 남학생으로 제한되어 진행되고 있었으나, 앞으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등 다양한 개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위기수준에 따른 하부 위기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군에서는 과다사용,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금단, 고위험군에서는 일상생활장애의 문제가 각각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독에 이르는 과정(과다사용→금단→일상생활장애)을 짐작하게 하며, 이에 각 위험수준이나 유형에 따른 다른 개입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일반군 청소년은 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자기조절 교육, 잠재적위험군은 금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활동 탐색, 고위험군은 미디어와 단절된 상황에서 치료 중심의 개입 등 각각 수준과 유형에 초점을 맞추는 차별화된 개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넷째, 저연령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의무화

사회 전반적인 금연에 대한 강조와 흡연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흡연하는 청소년은 일반학생의 2.6%, 취약·위기청소년의 22.0%로 나타나고 있어 흡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흡연의 경우 다른 많은 위기결과들과 함께 발생하여 비행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흡연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기 흡연과 관련된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은 최근 최초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의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흡연의 저연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단순한 호기심과 또래집단의 소속감을 얻기 위해 청소년기에 시작한 흡연은 니코틴의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이 더욱 힘든 실정이며, 청소년기는 장기가 성숙하지 않은 시기여서 16세 이하의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20세 이후 성년기에 처음 흡연을 시작했을 때 피해의 3배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점점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기 금연교육은 그 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연령을 대상으로 흡연 폐해와 간접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저연령 자녀를 둔 가정 내 금연을 권장하도록 부모 대상 금연 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 다섯째,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개입 방법 다양화

과거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행, 집단 따돌림 등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해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학교폭력 감소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폭력 유형의 변화와 다양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도 신체폭력이나 따돌림, 돈·물건 빼앗김의 경우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고위험군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의 경우 일반군 집단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활성화되어 먼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도 추가 연구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여섯째, 자살 경고 사인 발견시, 빠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제도화**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통계청, 2013)라는 통계자료와 본 연구에서 지난 1년간 주 1~2회 자살 계획을 해본 청소년이 1.4%, 2회 이상 자살 시도를 해본 청소년이 2.1%라는 치명적인 숫자를 고려하면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회 이상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후로도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자살 계획이 일반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살 시도는 3개 위기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위기결과와 달리 자살과 관련한 문제는 위기수준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 그 대상을 예측할 수 없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또래, 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자살 경고 사인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여 자살 경고 사인 발견시 주변에서 빠르게 대응·개입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일곱째, 청소년 문제 행동 감소를 위한 대상별 보호요인 강화 노력 필요**

본 연구에서는 위기수준 일반군에 비해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이 보호요인에 대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문제행동을 억제하고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상황에서 정상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보호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위기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있어 보호요인 세부영역 강화에 초점을 둔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 보호요인에서 일반학생이 취약·위기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약·위기청소년의 표집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받는 긍정적 영향이 일반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받는 정서적지지 즉 또래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도움 받을 친구가 많을 때 비행억제의 개연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어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한 또래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습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또래 보호요인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근모, 이준기(2015). 청소년 가출관련변인의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115-144.
-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2), 27-50.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김기태(2006). 위기개입론 :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 서울 : 대왕사.
- 김보영, 이정숙(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9(5), 651-661.
- 김은경, 홍영오(2006).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문동규, 김영희(2012).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59-83.
- 박재연(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영준, 오윤수(2013). 청소년 위험요인이 위기결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1(4), 125-145.
-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원(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335-367.
- 이상현, 윤명성(2007).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1), 89-118.
- 이준기, 정경용, 김용수(2012). 생태학적 접근에 근거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연구*.
- 이창호, 김동민, 심용출, 이미경, 전소연, 차진영(2013). 청소년 위기 요인 메타분석-학교폭력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해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 정익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체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한중철,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 황순길, 김동민, 김화연(2015).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Blum, R.(1998). Healthy youth development as a model for youth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5), 368-375.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e, N. (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 Urban Institute.

- Connexions(2001). *Introduction to Connexions*. Diploma for Connexions Personal Advisers.
- Garmezy, N.(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 McGraw-Hill.
- Hagan, J. (1994). *Crime and disrepute*. Thousand Okas : Pine Forge Press.
- Johnson, G. M.(1997). Teachers in the inner city : Experience-based ratings of factors that place students at risk. *Preventing School Failure*, 42(1), 19-27.
- McWhiter, J. J., McWhiter, B. T., McWhiter, E. H., & Mcwhiter, R. J.(2007). *At-Risk Youth :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 OECD(1996). *Inegrating Services for Children at Risk*. Centre for Educational reserch and innovation.
- Wilinson.(1974). The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 Scientific explanation or ideology. *Social Problems*, 21, 726-739.



## 부록1.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

## 2015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법 제3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에 의거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 상담, 보호, 긴급구조 및 활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에서 설립한 청소년 전문기관입니다.

이 설문지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생각과 생활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됨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전체 응답은 한꺼번에 통계처리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

본 연구는 충남 도내 15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합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통계법 제 32조에 의하여 응답자는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 속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 ② 여자 ( )

2. 나이 : \_\_\_\_\_세

3. 소속된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 )                      ② 중학교 ( )  
③ 인문계 고등학교 ( )              ④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  
⑤ 대안학교 ( )                      ⑥ 검정고시 학원 ( )  
⑦ 직업학교 ( )                      ⑧ 직업훈련기관 ( )  
⑨ 소년원 학교 ( )                      ⑩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 )  
⑪ 꿈드림센터 ( )

4. 현재 몇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5학년 ( )    ② 초등학교 6학년 ( )    ③ 중학교 1학년 ( )  
④ 중학교 2학년 ( )    ⑤ 중학교 3학년 ( )    ⑥ 고등학교1학년 ( )  
⑦ 고등학교 2학년 ( )    ⑧ 고등학교 3학년 ( )    ⑨ 해당 없음 ( )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천안시 ( )    ② 공주시 ( )    ③ 보령시 ( )  
④ 아산시 ( )    ⑤ 서산시 ( )    ⑥ 논산시 ( )  
⑦ 계룡시 ( )    ⑧ 당진시 ( )    ⑨ 금산군 ( )  
⑩ 부여군 ( )    ⑪ 서천군 ( )    ⑫ 청양군 ( )  
⑬ 홍성군 ( )    ⑭ 예산군 ( )    ⑮ 태안군 ( )

5-1.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명을 적어주세요. \_\_\_\_\_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① 친아버지 ( )                      ② 친어머니 ( )  
③ 새아버지 ( )                      ④ 새어머니 ( )  
⑤ 할머니나 할아버지 ( )              ⑥ 친척 ( )  
⑦ 형제자매 (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  
⑨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 )  
⑩ 혼자살고 있다 ( )                      ⑪ 기타(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 )  
 ③ 한 분만 외국인 ( )                        ④ 두 분 모두 새터민 ( )  
 ⑤ 한 분만 새터민 (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                      ⑧ 모르겠다 ( )

##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                    ② 어려운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잘사는 편이다 (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① 없다 ( )                                      ② 기초생계비지원 ( )  
 ③ 의료비 지원 ( )                            ④ 급식비 지원 (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⑥ 기타 (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0	1	2	3	4
29. 화가 나면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0	1	2	3	4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0	1	2	3	4
31.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0	1	2	3	4
32.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0	1	2	3	4
3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0	1	2	3	4
3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0	1	2	3	4
35.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0	1	2	3	4
36.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0	1	2	3	4
37.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신다.	0	1	2	3	4
38.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0	1	2	3	4
39.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0	1	2	3	4
40.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0	1	2	3	4
41.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0	1	2	3	4
42.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0	1	2	3	4
43.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44.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0	1	2	3	4
45.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0	1	2	3	4
46.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7.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0	1	2	3	4
48.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0	1	2	3	4
49.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0	1	2	3	4
50.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0	1	2	3	4
51. 나는 학교가 싫다.	0	1	2	3	4
52.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0	1	2	3	4
53.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0	1	2	3	4
54.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55.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0	1	2
56.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0	1	2
57.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	0	1	2
58.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0	1	2
59.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0	1	2
60.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0	1	2
61.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0	1	2
62.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0	1	2

※ 다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63.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교사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0	1	2	3	4
64.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0	1	2	3	4
65.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66.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고 일상 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0	1	2	3	4
67.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0	1	2	3	4
68.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4
69.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4
70.	지난 한 달 동안 가스, 마약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7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3.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4.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1	2	3	4
75.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6.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3	4
77.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78.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0	1	2	3	4
79.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80.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1.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2.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83.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	0	1	2	3	4
84.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85.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86.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87.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0	1	2	3	4
8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0	1	2	3	4
8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90.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91.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9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1	2	3	4
93.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0	1	2	3	4
94.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0	1	2	3	4
95.	지난 1년 동안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96.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0	1	2	3	4
97.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학업중단하기 전 받는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혹은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만약 경험이 없다면 104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98.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 없이 결근 또는 조퇴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99.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0	1	2	3	4
100.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생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0	1	2	3	4
101.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2.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3.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 문항에 대하여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04.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0	1
105.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0	1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6.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107.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0	1	2	3	4
108.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9.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11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111.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0	1	2	3	4
112.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0	1	2	3	4
113.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0	1	2	3	4
11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0	1	2	3	4
115.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0	1	2	3	4
116.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0	1	2	3	4
117.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11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11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12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0	1	2	3	4

수고 많으셨습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

## 2015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책임연구 \_ 이미원

공동연구 \_ 임정인 송미영

자 문 \_ 강진아 김순주 김영상 박주란 유규상 주현정

편 집 \_ 김미영 반예슬 이은지 안세미

발 행 일 \_ 2015년 12월

발 행 인 \_ 장기수

발 행 처 \_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진암빌딩 3,4층)  
tel. 041-554-2130 fax. 041-552-1984

---

본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